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You are free to :

- Share — copy and redistribute the material in any medium or format

Under the follwing terms :

Attribution — You must give appropriate credit, provide a link to the license, and indicate if changes were made. You may do so in any reasonable manner, but not in any way that suggests the licensor endorses you or your use.

NonCommercial — You may not use the material for commercial purposes.

NoDerivatives — If you remix, transform, or build upon the material, you may not distribute the modified material.

You do not have to comply with the license for elements of the material in the public domain or where your use is permitted by an applicable exception or limitation.

This is a human-readable summary of (and not a substitute for) the license.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석사학위논문

네덜란드의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한 연구

2016 년 2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닐스 미스터버리

Research on the Involvement of the Netherlands in the Korean War

A Thesis presented

By

Nils Roald Meesterburrie

To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a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Feburary 2016

네덜란드의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닐스 미스터버리

닐스 미스터버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월

위 원 장	은기수	(인)
부 위 원 장	신성호	(인)
위 원	박태균	(인)

A Research on the Involvement of the Netherlands in the Korean War

Professor Park Tae-Gyun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January 2016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Nils Roald Meesterburrie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Nils Roald Meesterburrie

January 2016

Committee Chair	**Eun Ki-Soo**	**(Seal)**
Committee Vice Chair	**Sheen Seong-Ho**	**(Seal)**
Committee member	**Park Tae-Gyun**	**(Seal)**

<국문초록>

네덜란드의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한 연구

닐스 미스터버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 연구는 네덜란드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요인과 2 차 세계대전 이전 외교정책의 중심이었던 중립주의 및 2 차 세계대전 이후 대서양향 외교정책이 한국 전쟁 발발 시에 어떻게 공전했는지 논의한다. 네덜란드의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한 기존연구는 한국에 파견된 병사들의 경험을 서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일란드스가 제시한 네덜란드의 한국전쟁 참전의 네 요인 중심으로 분석했다: ㄱ) 네덜란드가 국제법질서 전통적 지지자였던 요인, ㄴ) 네덜란드가 유럽 지역에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안보 보증이 필요했던 용인, ㄷ) 네덜란드가 다른 NATO 회원국가에게 연대감을

표현하고자 했던 요인, ㄹ) 네덜란드가 아시아 지역에 국익을 보존하려고 하였던 요인이 있었다. 위 요인의 타당성 및 한계점이 네덜란드 외교통상부의 1 차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에 대한 네덜란드의 의존성이 네덜란드의 한국전쟁 파병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악화된 군사 정세로 인하여 네덜란드에 구축함 파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렸고 이에 압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손익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냈다. 그 결과는 경제적 재활 미국의 지원과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보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미국 압력에 굴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였다. 이 측면에서 네덜란드가 뉴기니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는 네덜란드 정부 고려의 구체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네덜란드는 한반도에 파병할 결정으로 인해 공산권을 향한 회유정책을 포기하게 되었다.

대서양향 접근과 중립주의 접근이 당시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공존하는 것은 이 점과 큰 연관이 있다. 기존연구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간과했다. 네덜란드는 냉전 시작으로 현성된 양극 세계질서의 구조(framework) 내에 중립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려 했다. 국제법질서의 보호자로써 현실주의적 정치에 자유주의 접근을 순진하게 시행하고 싶었다.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였는데 대서양향 구조에서 정책을 취해야 했다. 위에서 설명한 국익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연루 (entrapment)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우려가 진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 외교정책과 미국 외교정책 간의 논쟁점은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냈다. 유엔군이 38 도선을 건너간 것은 대체로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엔군이 38 도선을 넘어 간 사실보다 다른 여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최후의 축진제였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냈다. 대만 해협으로 7 함대의 파견은 최근에 건국된 불안정한 국가의 생존을 도전하는 도발에 확고히 반응하는 중국에게도 큰 위협이었다. 중국 문제에 대해 급진 야망을 가진 맥아더는 유엔군과 미국 극동군의사령이 되어 중국의 우려를 심화시켰다.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없는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 7 함대가 대만 해협에 없었으며 북한 침략을 막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면 38 도선을 건너가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필자는 본 연구가 중국 개입에 대한 점을 드러낸 것처럼 무력 정치의 냉전시기에 소약국 정책에 대한 연구가 흥미로운 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제시로 본 연구를 끝내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 한국 전쟁 때 소약국 정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강대국의 참전에 집중하는 기존연구의 흥미로운 보탬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게 해 줄 수 있다.

주요어: 한국 전쟁, 네덜란드, 참전, 중립정책, 대서양정책, 네덜란드령 뉴기니, 냉전, 약소국

학번: 2013-24016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기존연구와 한계 4
3. 방법론과 자료 10

II. 2 차 세계대전 직후 네덜란드 외교정책 14
1. 2 차 세계대전 후 네덜란드의 대서양 외교 14
2. 네덜란드의 식민지 정책 21

III. 네덜란드의 한국 전쟁 참전 결정과정 31
1. 전쟁 초기 네덜란드 정부의 태도 31
2. 에베르트센 구축함의 파견과 중국 문제 36
3. 전투부대 파병 여부에 대한 논란 40
4. 의용병사 모집에 대한 논의 46
5. 38 도선 이북으로의 북진 결정을 둘러싼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 50

IV. 한국 전쟁 참전 결정과정에 대한 재고찰 58

V. 결론 70

VI. 참고문헌 73

VII 부록 81

VIII. Abstract 8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세계는 제 2 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벗어나지 못 하며 1940 년대 후반에 두 진영으로 분열되었으며 냉전시기에 들어갔다. 당시 세계의 두 패권국인 미국과 소련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전을 벌였다. 이 사상전은 세계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는데 사상전의 핵심은 유라시아 대륙이었다. 유럽지역에서는 베를린봉쇄, 체코슬로바키아의 쿠데타,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의 혼란 등으로 인해 대중이 사상적인 대립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의 국공 내전에서에 마오 쩌둥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공산권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유럽•아시아 대륙 양쪽으로 구성된 소련의 성공적인 핵실험으로 인하여 자유진영과 아시아의 새로운 국가들도 공산주의에 대한 우려에 빠졌다.

네덜란드는 냉전시기의 효과를 당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당시 네덜란드 왕국은 유럽 외에 아시아 지역에 네덜란드 동인도(현재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령 뉴기니가 함유되었으니까 더욱 복잡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왕국은 1949 년에 커다란 타격을 겪었다. 즉, 1949 년 12 월 27 일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자주권을 인도네시아에게 이양했다. 이양 이전네덜란드 군대는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다.. 1947 년 7 월 21 일 부터 1947 년 8 월 5 일까지 및

1948 년 12 월 19 일 부터 1949 년 1 월 5 일까지의 두 차례 공격으로 인해인도네시아 시민 15 만명은 20 만명의 네덜란드 군대로 인하여 사살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네덜란드는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었고 자주권을 이양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네덜란드 왕국은 상당한 국토 및 인구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1940 년대 후반은 네덜란드 정부에게 국내외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안보 측면에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관한 국내 혼란은 국외 혼란 보다 물론 더 심각했다. 유럽에서 공산주의적 소란이 만연되면서 네덜란드의 군대의 다수를 인도네시아에 파병된 사실은 이 것을 잘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국모총리인 윌렘 드레이스(Willem Drees)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군사적보다 경제•사회적 위협이라고 하면선 네덜란드 정부의 시각을 표현했다. 1949 년 초반에 드레이스는 네덜란드 각료 회의에"네덜란드의 경제•사회적 상태를 악화시키는 국방지출 증가가 러시아에게 얼마나 큰 호의인데"라고 제시했다.[1] 드레이스는 경제적 불안이 2 차 세계대전의 효과를 회복하지 못 한 네덜란드에서 공산주의적 운동들에게 비옥한 토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50 년 6 월 25 일에 공산주의의 위협이 현실되었을 때 이러한 공산주의에 향한 '케난주의적인(Kennanesque)' 접근은 바뀌었다. 이러한 현실과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국방지출이 결국 증가하게 되었다 (Hellema,

[1]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터리번호 394, fiche 41, 각료화의록 1949 년 1 월 24 일.

2006: pp. 165-166). 네덜란드는 마지못하게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하며, 전쟁 발발 직후에 하레 마예스타잇 에베르트센(Hr. Mjs. Evertsen) 구축함을 파견한 뒤에 10 월 26 일에 군인 636 명이 들어가는 전투부대를 파병하게 되었다. 1950 년부터 1954 년까지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는총 4748 명의 군인을 파병하게 되었다. 이 중에 122 명이 사망했고, 3 명이 전시행발불명이 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기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진영의 지도자인 미국이 네덜란드 외교정치의 더욱이 유의미한 중심이 되었다. 게다가 이 시기는 인도네시아의 상실로 인해 국제정치에서 네덜란드의 태도가 조절시켜야 되었던 시기였다. 정치사학자들은 이 두 발전들이 네덜란드의 식민주의적•중립주의 정치에서의 끝 및 대양서향 정치의 시작으로 설명한다 (Baudet and Fennema, 1983: p. 17). 또 다른 당시 네덜란드 정치의 접근은 유럽의 통합을 강조하는 접근이었다. 이 마지막 접근은 본 연구를 포괄적 연구 만들도록 이하 짧게 설명할 것인데, 본 연구의 중심과 깊숙한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앞서를 고려해서, 본 연구의 두 기둥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네덜란드의 한국전쟁 참전 및 네덜란드 1940 년대 후반 •1950 년대 초반의 외교정책 변환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측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것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은 담론에 대체로

한국,미국, 그리고 중국 관점에서 연구되었는데 주된 참전국가 아니었던 네덜란드의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한다.

2. 기존연구와 한계

이상 두 측면에 관하여 광범위한 연구와 좁은 단위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하 이러한 연구에 대하여 짧게 평가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 한국전쟁 참전, 그리고 식민주의적•중립주의 접근과 대서양향 접근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를 논의하고자 한다.

네덜란드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네덜란드 측의 연구는 존재하나, 네덜란드에서도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다. 선행 연구는 대체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의 경험에 집중되었다. 스팁하웃(Stiphout, 2009)이 쓴 '가장 살벌한 전쟁' (De Bloedigste Oorlog), 스갑스마(Schaafsma, 1960)가 쓴 '한국에서의 네덜란드의 유엔 파견단, 1950-1954' (Het Nederlandse Detachement Verenigde Naties in Korea, 1950-1954), 케스터 등(Kester et.al., 2000)이 쓴 '한국에 포커스' (Focus op Korea), 텐 벨데(Ten Velde, 1983)가 쓴 '네덜란드의 한국전쟁에 참전' (De Nederlandse deelname aan de Korea Oorlog) 등의 연구들은 이러한 전사적 측면에 집중하는 연구의 예시로 들 수 있다. 또한 냉전시기 정치사나 네덜란드의 총체적인 전사에 대한 연구에도 한국전쟁에 대한 부분이 가끔 언급된다. 헬레마 등(Hellema et. al., 1995)이 주재한 '외교부의 연감'

(Jaarboek Buitenlandse Zaken), 클랩 등(Klep et.al., 1999)이 쓴 '한국에서 코서보까지' (Van Korea tot Kosovo), 호페나르 등(Hoffenaar and Teitler, 1992)이 쓴 '냉전: 1950 년대의 사회와 군대' (De Koude Oorlog: Maatschappij en krijgsmacht in de Jaren '50) 등의 연구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부분이 있는 연구의 예시로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구체적인 영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 유일한 제외는 피트(Peate, 2004)가 쓴 '반 호잇스 부대는 인습을 만든다: 한국에서 주둔한 네덜란드 파견단' (The Van Heutzs create a tradition: the Dutch contingent in Korea)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은 학술적인 논문 보다 기사라고 할 수 있다. 피트도 네덜란드의 한국전쟁 참전군의 체험에 집중했다. 핼버르스탬(Halberstam, 2009)이 쓴 '콜디스트 윈터' (Coldest Winter)이라는 도서에 네덜란드 참전군에 대한 몇몇 구절이 나온다. 핼버스탬도 네덜란드 병사들의 체험에 대하여 썼다. 한문 담론에도 네덜란드 참전에 대한 연구는 수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2010)가 출판한 긴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지정학적 특징, 역사, 정치, 사회, 국방, 그리고 대외관계 등의 네덜란드 개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서술하며, 대체로 한국전쟁 자체에 집중한 보고서이다. 약 40 페이지는 네덜란드군 참전에 대하여 서술하는데 이 보고서도 군사적 관점에 집중한 것이다. 이 외에 휴전 이후의 네덜란드군 참전에 대한 기억과 한•네덜란드 관계를 분석한다. 에일란드스(Elands, 2001)가 쓴 '싸우기, 상상하기, 그리고 극복하기' (Vechten, verbeelden,

verwerken)라는 도서는 네덜란드의 한국 전쟁 참전의 이유를 짧게 설명한다. 에일란드스는 네덜란드의 한반도에 파병이 이유 네 가지 있었다고 제시한다. 첫째 이유는 네덜란드가 국제법질서의 보호자라는 명성이 있는 것이었다. 이 명성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살벌한 개입으로 악화되었으므로 국제법질서를 집행을 통해 명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둘 째 이유는 서유럽의 경제적 재활과 안보를 위해 미국의 원조와 지지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가 미국이 세계평화를 지키는 작업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서유럽을 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의 인식이었다. 셋째 이유는 네덜란드가 들어가 있는 동맹 안에 연대감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이다. 국익이 동맹의 국익 보다 주요하다는 인상을 동맹국에게 주지 않도록 했다. 넷째 이유는 한국전쟁 참전이 네덜란드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익을 보존하는 점이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통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미국의 호의를 참전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네덜란드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연구 보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주 광범위하다. 이 시기의 정책은 특히 냉전시기에 매우 유행했던 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에 영향이 가장 많은 학술자는 탈냉전시기 학술자 헬레마(Hellema, 2006: pp. 145-176)인 것은 거의 틀림없다. 헬레마가 쓴 '세계정치에 네덜란드의 역할(De Nederlandse rol in de wereldpolitiek)' 이라는 도서는 2 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 외교정책을 살펴보며, 1948-1952 시기에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장이 있다. 이 장에서 헬레마는 네덜란드가 이 시기에 미국과의 군사적 뿐만 정치•경제적 관계 중심으로 된 대서양향 접근을 취했다고 말한다 (Hellema, 2006: pp.148). 다른 연구에 헬레마는 역사적 발전들이 하루에 실행되지 않아서 이 대서양향 접근이 2 차 세계대전 전의 중립주의•식민주의적 접근과 함께 공존했다고 쓴다 (Hellema, 1990: p. 197). 얼마나 걸렸는지 학술자들의 주장이 다르지만 대서양향 접근이 중립주의 •식민주의적 접근을 대체한 과정은 수년 걸렸다. 1948-1949 년에 NATO 가 설립되었고 인도네시아의 비식민지화가 실행되었는데, 많은 정치사학자들은 이 시기가 대서양향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당시에 마샬플랜은 2 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생긴 무역•통화 문제들을 전통적인 중립주의의 쌍무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네덜란드 정부의 시도를 끝막았으며 미국 감시의 대상인 다각적 접근을 위해 길을 열었다 (Hellema, 2006: p.149). 반 스타덴(Van Staden, 1973: p. 738)은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변화는 1949 년에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반 스타덴에 따르면 이때 부터 “충성스로운 동맹의 역할은 군사적 의무의 양심적인 준수와 미국 외교정책에 향한 거의 무조건인 지지”로 표현되었다. 반 스타덴이 1950-1960 년대에 네덜란드가 “NATO 와 미국 정책에 관한 극단적인 충성”이라는 문명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Van Staden, 1989: p.99). 바르(Baehr, 1978: pp. 7, 24)는 ‘네덜란드의 외교정책(The Foreign Policy of the Netherlands)’이라는 논문에 반 스타덴과 동의한다. 바르는 “네덜란드 외겨정책은 미국의 반감을 사지 않는 희망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 이 동맹은 냉전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스헤퍼(Scheffer, 1988: p. 56))는 '만족한 나라:네덜란드와 유럽 현상에 대한 돌아온 믿음(Een tevreden natie: Nederland en het wederkerend geloof in de Europese status quo)'이라는 도서에서 비식민화의 완성이 대서양 현장에 원활한 참여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한다. 헬드링(Heldring, 1978a: p. 38))은 '1945 년 이후의 네덜란드 외교정치'라는 논문에 이 시각과 공감한다.

한편에 인도네시아의 상실은 네덜란드 외교정책 차원에서 식민주의적 의식의 끝이 아니었다. 사실상, 네덜란드령 뉴기니는 1962 년까지 네덜란드 왕국의 일부로 존재했다. 라이프하트(Lijphart, 1966: p. 285))는 1950 년까지 식민주의적 의식이 네덜란드 외교정책에서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비식민화의 트라우마(The Trauma of Decolonization: The Dutch and West New Guinea)'라는 도서에서 제시한다. 네덜란드령 뉴기니에 대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 독선, 분개, 그리고 모조의 도덕적인 확신 같은 병적 의식에 드러나 있는 강렬한 감정적인 현신을 가져" 정책을 취했다. 더불어 이하 언급할 것인데 인도네시아 및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비식민화는 유엔에서 큰 토의의제였다. 따라서 반 캄펜(Van Campen, 1958: p. 145)은 네덜란드 정부의 브뤼셀의 조약과 NATO 회원권이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령 뉴기닌에 향한 정책에 관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헬레마는 반캄펜과 동의한다 (Hellema, 2006: pp. 152, 155-156). 보어후벤(Voorhoeven,

1985: p.60))도 '평화, 이익들, 그리고 원칙들(Peace, profits, and principles: a study of Dutch foreign policy)'이라는 도서에서는 "유엔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1962 년까지 네덜란드령 뉴기니에 대한 정책에 관한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다"고 제시한다. 헬레마는 네덜란드령 뉴기니에 대하여 강대국의 국익과 대립하는 '전형적인' 네덜란드 정책을 관찰한다. 헬레마에 의하면 네덜란드 외교정치에 아직 전면적인 '국제주의'나 '유엔 합법주의'가 없었다 (Hellema, 1990: p. 68). 변화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중립주의•식민주의적 접근과 대서양향 접근이 1950 년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공존하는 것이 분명하다. 미국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네덜란드 정책이 유럽과 대서양 동맹의 다각적인 접근에 지향하게 되었어도 네덜란드 정부의 식민주의적 의식과 중립주의적 접근의 끝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은 이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태도 변환의 과정 중에 발발했는데 이처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 때문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변하도록 한다:

①.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전쟁에 왜 참전하기로 하였을까?

앞서 언급한대로 이 질문을 깊속히 분석한 연구가 아직 없다. 에일란드스가 네가지 요인을 제시했으나 이 요인의 논거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에일란드스의 요인을 차용하고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②. 한국전쟁에 관한 식민주의•중립주의적 및 대서양향 접근들이 네덜란드 외교정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존하였을까?

둘째 질문의 답변이첫째 질문의 답변을 보완한다. 당시 네덜란드의 외교정책을 제대로 파악해야 네덜란드의 한국전쟁 참전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가 결국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이상 두 접근 중에 대서양향 접근이 가장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본연구는 이 가정이 어느 정도타당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3. 방법론과 자료

이상의 두 질문을 답하기 위해 중심 개념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네덜란드는 양극 세계질서(bipolar world order)에서 미미한 국가였다. 다시 말해서, 두 진영이 국제 정치를 지배하였으며 네덜란드가 그 중에 한 진영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중립국가들도 있었다. 진영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당시 세계 질서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과 동맹을 맺었다. 신현실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동맹을 맺거나 연합을 가입하는 이유는 국가의 국익이다. 난마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국제 질서에서 국가들이 자신의 국방을 스스로 보존하지 못 하니까 연합에 가입하는 것이다 (Snyder, 1984: p. 461). 반면에 신자유주의적 시각은 국가들의 상호 의존(interdependence)을 강조하며 이 상호 의존이 국가 간의 협력을 초래한다(Keohane and Nye, 1989: pp. 23-25). 이 두 시각은 담론에 뿐만 아니라 실제에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한 연합에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진

국가와 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진 국가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상 질문을 답하기 위해 또 다른 필요한 구별은 강대국, 중간 국가, 약소국의 지위와 연합 내의 다양한 역할의 구별이다 (Van Staden, 1978: p. 137). 다양한 국가들 다양한 역할과 시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관한 네덜란드의 정책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 미국이나 소련과 분명히 다르는 네덜란드의 지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를 강대국, 중간 국가나 약소국으로 분류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첫째,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미국에 비해 약소국이었으나 룩셈부르그에 비하여 강한 나라이다. 둘째, *어느 측면*에서 각 국이 구분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경제력, 군사력, 인구 등의 측면에 따라 국제 질서에서 다양한 지위를 가진다 (Van Staden, 1978: p.145). 본 논문의 주된 질문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 외교정책 방향의 변환이 미국 정책을 따르는 정도에 대한 질문이다. 때문에 네덜란드 지위를 정의하는 기준은 미국이며, 분석할 측면은 네덜란드 외교부의 정치력이다. 지위를 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방식은 *인식*(perception)이다. 한 국가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인식만큼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Keohane, 1969: p. 296). 이 인식은 내외부 요인으로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한 국가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경제력, 군사력이나 인구 등을 바탕으로 형성할 수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 한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그 한 국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한 마지막으로 필요한 구분은 중간 국가와 약소국에 대한 구분이다.

이 구분을 위해 집단 안에 지도자가 그 집단의 규범과 가치를 정의한다는 사회학적 설명을 사용한다. 불순종이 소외를 초래 할 수 있어서 집단의 주변(periphery)에 있는 소약국들은 집단의 규범과 가치를 잘 지키는 편이다. 국제관계학에서 이 소외는 '포기함'나 '포기됨'(abandonment)이라고 언급한다. 중간 국가들이 집단의 규범과 가치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다 (Galtung, 1968: pp. 270-302). 이에 대한 제한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양극 국제 질서의 다른 '극(極)'의 위협 때문에 연합 국가들이 재편성(realignment)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연합의 지도자가 정치적 시각 상관 없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탈편성(de-alignment)할 가능서이 거의 없다 (Snyder, 1984: p.484). 오히려, 약소국에게 '연루'(entrapment)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소약국이 강대국 압박으로 인해 억지로 충돌에 끄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약국들은 강대국이 연합의 집단적 정당화가 필요해서 강대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Snyder, 1984: pp. 484-485). '연합', '포기'와 '연루'라는 개념과 강대국, 중간 국가와 소약국의 구별은 본 논문의 두 주된 질문을 답할 4 장의 분석에 사용된다.

본 연구는 1 차 자료 중심으로 이상 질문을 답변하도록 한다.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에서 각료 회의록과 해당한 외교부의 통신 및 외교부와 주미네덜란드 대사관 간의 통신 기록을 찾았으며 이 자료들을 통하여 네덜란드 각료와 외교부의 시각을 나타내고자 한다. 게다가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대한 해당한 부분이 나오는 FRUS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라는 자료도 사용하고 한다. 자료를 보자면 네덜란드-미국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분명하다. 당시 자유세계 질서를 지배하고 한국전쟁에 유엔군 사령부를 지도하는 나라는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외교부 자료에 네덜란드의 유엔 대표자와 일본, 중국, 소련, 케나다, 영국, 인도 등의 다른 네덜란드 대사관과의 통신도 가끔 나온다. 마지막 1 차 자료는 네덜란드 국회의 사당 회의록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논의 별로 진행되었지 않지만 흥미로운 점이 몇 개 나오니까 포함시키게 되었다. 배경에 대한 장에는 2 차 자료로는 네덜란드문, 한문, 그리고 영문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문적과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살펴볼 기간은 한국전쟁의 시초이다. 더 자세히 말해서, 살펴볼 기간이 한국전쟁의 발발 부터 1950 년 10 월 26 일까지이다. 네덜란드 전투부대가 1950 년 10 월 26 일에 네덜란드에서 출발했으니까 전쟁의 발발 부터 군대 파병된 날까지의 기간은 네덜란드 정부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의사 결정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1 차 자료들은 다 이 기간에 써 되었거나 이 기간에 대한 자료들이다.

II. 2 차 세계대전 직후 네덜란드 외교정책

한국전쟁 발발 시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얻도록 이러한 외교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50 년까지의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서술이 한국전쟁 발발했을 때의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배경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게다가 네덜란드 정부가 한군전쟁의 발발 직전에 직면하는 외교정책에 관한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은 이러한 배경을 제공할 것이다.

1. 2 차 세계대전 전후 네덜란드의 대성양 외교

현재 네덜란드의 국사는 네덜란드가 1568 년 부터 1648 년까지 스패인과 싸운 팔십년 전쟁(the 80 years' war)으로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건국자인 윌럼 반 오라녜 (William of Orange)는 이 반란의 지도자였다. 팔십년의 전쟁 동안 암스테르담이 선두하는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뉴욕, 나가사끼, 남아프리카와 동인도에 기지가 있는 광범위한 무역망을 구축했다. 이 시기는 네덜란드의 황금기(Golden Age)의 전반으로 언급한다. 팔십년의 전쟁의 마지막 30 년은 1648 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낸 삼십년전쟁과 일치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오늘 날까지 국제관계를 관리하는 국가주권 (state sovereignty)의 개념의 창조로 유명하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네덜란드 연합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며 네덜란드 공화국의 시작이었다. 17 세기 전반에 구축된 무역망이 18 세기 초까지 이어진 네덜란드 황금기

후반에 보존되었고다. 이 황금기에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되었다.

네덜란드 외교정치사는 이 황금기에 시작한다. 선진 무역망의 구축과 네덜란드 주권국으로 건국된 것은 주권국으로써 다른 주권국과의 관계 관리의 필요성과 무역권리의 보존의 필요성이 생겼다. 네덜란드의 어마어마한 무역망은 군사적으로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막대한 부(富)를 생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국익을 보존하기 위해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는 이 시기에 네덜란드의 식민 제국을 위한 토대를 세웠다. 18 세기 들어가서 네덜란드 공화국의 권력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프로이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같은 대륙 강대국이 네덜란드를 능가하였고, 평소에 강대국인 영국이 꾸준히 발전했다. 네덜란드가 인구와 영토 측면에서 이러한 국가들과 투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공화국이 부(富)를 통해 네덜란드의 지위를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군사적 열등과 상업적인 국익을 보존할 필요 때문에 중립주의적 외교정책의 선택은 논리적인 선택이었다 (Baehr, 1978: pp. 4-7).

중립주의적 외교정책은 네덜란드 공화국이 전시든 평시든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와 쌍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업적 원인으로 전쟁을 벌이지 않을 의미이다. 국가의 부(富)를 보험하기 위해 전쟁의 회피를 의미하는 공리적 평화주의 (utalitiarian pacifism)로 정의하는 학술자도 있다 (Boogman, 1978: p. 34). 이 중립주의적 외교정책을 취하면서 중립주의는 네덜란드 의식에 귀속되었고 공리적 토대에 아니라

도덕적 토대에 근거하는 평화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Boogman, 1978: p. 44). 외교정책에 관한 도덕적•법리적(moralistic-legalistic) 태도가 생겼다. 네덜란드 외교정책은 정책 결정이 무력 외교 아니라 도덕 토대에 근거해야 하는 확신 때문에 도덕적이었으며, 국제 조약 같은 국제 법률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에 법리적이었다 (Heldring, 1970: pp. 28-29).

1815 년 네덜란드 왕국의 건국 부터 네덜란드가 세계 정의의 중심이라는 국민의식이 나타났다. 네덜란드 1848 년 헌법을 쓴 토르베케이 말한대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는 네덜란드 정책은 다른 국가의 권력에 대한 욕망의 가장 공평한 심판자"이다 (Heldring, 1978b: p. 310).[2] 세기가 바뀔 즈음에 네덜란드의 국제 법리적 의미가 1899 년, 1907 년, 1915 년 헤이그 평화 회담과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 설립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Hellema, 2006: 65).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 네덜란드가 자신의 중립을 선언하였고 종전까지 유지하였는데 네덜란드의 중립 선언 때문 아니었다. 네덜란드가 유럽 강대국 간의 전쟁에 무사하는 이유는 강대국이 네덜란드를 침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독일은 저장품을 위해 로테르담 항구에서의 수입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항구의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다. 영국은 독일이 영국 건너편에 있는 해안을 점령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중립을 선호하였다 (Hellema, 2006: pp. 70-71). 1 차 세계대전 후 네덜란드는 독립적 정책으로도 언급된 '적극적 중립주의적

[2] In English: "The Dutch policy, itself free from lust for power, is the most impartial judge of other nations' lust for power."

외교정책'(active neutrality)을 취하기 시작했다.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설립으로 바뀐 국제 질서는 더 적극적인 다각적인 외교 접근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네덜란드는 상업적 국익을 보존하기 위해 유럽의 권력의 균형을 회복시킬 희망이 가졌다 (Hellema, 2006: pp. 74-80). 국제 연맹의 다각적 접근이 1930 년대에 실패한 후에 네덜란드는 다시 수동적 중립주의적 정책에 의탁했다. 이탈리아와 독일에 파시즘이 등장하면서 네덜란드는 또다시 중립주의의 공식을 신뢰했다. 부분적으로는 네덜란드 무역이 독일로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였기 때문이었다 (Hellema, 2006: pp. 87-93).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 네덜란드는 바로 중립을 선언했다. 중립의 선언이 1 차 세계대전처럼 외세 침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신뢰했다. 전쟁의 시초에 네덜란드 외교정책은 대체로 상업적인 국익을 보호할 목적이 있었으며 적대국 간의 긴장이 완화시킬 지향이 있었다 (Hellema, 2006: pp. 96-97). 네덜란드는 아직도 도덕적으로 전쟁 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국제법질서의 설립과 유지를 통하여 세계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신뢰했다 (Daalder, 1978: pp. 50-51). 그러나 네덜란드도 나치독일의 흉악을 직면하게 되었고 1945 년 5 월까지 점령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정치가들은 2 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핵심적 가치관을 재해석하게 되었다. 중립주의 공식의 실패뿐만 아니라 유럽 중심으로 정의된 세계 질서의 파괴 때문이었다. 2 차 세계대전 동안 네덜란드 정책 입안자들이 이미 전후의 세계질서에서 네덜란드 지위에 대해 예상하고

있었다. 유럽과 대서양 통합을 취하고자 하는 접근들이 확고해졌다. 유엔 설립할 계획으로 인해 1920 년대 적극적 중립주의와 같은 보편주의적 접근도 나타났다 (Hellema, 2006: pp. 113-118). 다시 말해서, 2 차 세계대전 동안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관한 새로운 원칙이 세 가지가 구성되었다. 첫째는, (유엔이 보존하는)국제법질서를 지지하는 접근이었으며, 둘째는 대서양 연대감을 강조하는 접근이었으며, 셋째는 유럽 통합을 강조하는 접근이었다 (Russell, 1978: 169).

초기에 네덜란드는 유엔 설립에 대해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유엔을 강대국의 권력 정치를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보았다. 네덜란드는 유엔이 표방한 대로 진심으로 보편적이었다면 중간 국가와 약소국들도 참견할 권리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Hellema, 2005: p. 119). 2 차 세계대전 동안 네덜란드 정부는 처칠과 루스벨트가 네덜란드 의견을 늘 잘 들었는데 네덜란드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견할 수 없었다는 불만이 예로 들 수 있다 (Daalder, 1978: p. 61).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라는 식민지 속국과 상대적 강한 경제 때문에 자신을 중간국가로 여겼으니까 이 사실을 받아드리지 못 했다. 그러나 2 차세계 대전 후에 유엔에 향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유엔이 조화와 회유를 통해 국제 질서의 양극성(bipolar international order)을 방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Hellema, 2006: p. 123). 2 차 세계대전 후의 첫 몇년 동안 네덜란드는 유엔이 대규모 국제협력을 실시하는 강한 국제법질서를 설립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신뢰했다. 네덜란드 정부의

보기에는 미국과 소련 간에 좋은 관계가 이러한 국제 질서의 전제 조건이었으며 유엔이 이러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Schaper, 1978: pp. 104-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 년대 후반에 국제 질서의 양극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국제 질서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부분적으로) 몇 백년 동안 취한 네덜란드의 중립주의 외교정책을 포기하게 되었다. 동인도 영토와 상업적 제체라는 네덜란드의 주된 두 국익을 보존하기 위해 대서양과 유럽 통합에 참여해야 되었고 중립을 부분적으로 포기해야 되었다. 동인도 영토를 지키는 것은 미국 및 영국과의 정치적 사안이므로 대서양향 접근과 연관이 있다. 또한 상업적 제체는 유럽 경제의 재건과 통합과 관련이 셌다. 사실, 두 접근은 일치하는 분야가 많다. 미국이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안보의 이유로 자극했고 네덜란드가 동인도를 식민지로 유지할 수 있는 지지를 받을 계기로도 유럽 통합에 참여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유럽 통합에 대한 네덜란드의 시도는 독일 사회의 복위와 베네룩스(Benelux)와 서유럽의 경제적 연합을 지향했다. 독일 정세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주된 목표는 독일 사회의 비군사화를 통해 독일의 군사적 위협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 점에 네덜란드는 연합국들과 동감했다. 그러나 독일은 네덜란드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철강과 석탄 사업에서의 수입에 의존하였으므로 독일 경제발전과 통합에 대한 네덜란드의 시각은 연합국들의 시각 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 정부는 독일을 향한 경제적 양보 및 독일 무역의 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해 연합국들을 설득해 보았다. 미국과 영국의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으므로 네덜란드 정부는 벨기에와 룩셈부르그와 연합하여 영향력을 증가시키려고 했다 (Hellema, 2006: pp. 126-130). 결국, 1948 년에 마샬플랜과 론던 회담은 유럽 경제 복위와 독일의 재통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베네룩스는 경제적 지원을 얻는 효율적 수단이 되었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와 브뤼셀 조약의 설립 핵심의 일부 되었다.

1948 년 브뤼셀 조약은 베네룩스 국가, 프랑스와 영국 간에 군사적 동맹을 맺는 조약이었다. 네덜란드는 협상 동안 조약을 통해 유럽에 독일의 재통합을 방해하지 않도록 독일을 동맹의 대상으로 제외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조약에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정부는 브뤼셀 조약을 대서양 동맹의 첫 단계로 보고 협상의 결과에 만족했다 (Hellema, 2006: pp. 150-151). 이러한 대서양 동맹은 1949 년 NATO 의 설립으로 실시되었다. 네덜란단드 정부는 여러 이유로 NATO 의 설립을 찬성했다. NATO 설립의 주된 요인은 대체로 소련의 위협으로 정의된다. 네덜란드의 가입이 역시 소련의 위협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는데, 서론에서 언급한 Drees 의 선언으로 드러낸 바와 같이 네덜란드 정부는 불안한 사회는 공산주의 확산에 더 유리하며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네덜란드가 NATO 에 가입한 또 다른 이유는 독일에 대한 협의에 참견과 미국의 안전 보장이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소련 위협을 억제하는 것 보다 서유럽 안보 협력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Schaper, 1978: pp. 108-111). 또 다른 원인은 거의 모든 네덜란드 병력이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주둔하고 있었단 사실이었다 (Hellema, 2006: p. 152). 서론에 언급한대로 많은 학술자들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정세가 NATO 가입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다 (Van Campen, 1958: p. 145 / Hellema, 2006: pp. 155-156 / Voorhoeve, 1985: p. 60). 이 학자들에 의하면, 네덜란드 정부의 NATO 가입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2. 네덜란드의 식민지 정책

2 차 세계 대전 후의 네덜란드와 네덜란드 동인도 간의 관계를 보자면 보편주의적 중립주의 접근, 대서양향 접근, 그리고 유럽향 접근을 외에 식민주의적 중립주의라는 냇째 접근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접근의 의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보존할 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Hellema, 2006: p. 68). 앞서를 설명 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광범위한 무역망을 형성했다. 19 세기에 이 무역망 일부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되었다. 식민지들은 네덜란드 왕국의 국내 정치의 대상이었는데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지도하는 비식민화 운동이 시작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자결권의 보편성을 선포했다. 미국의 식민지인 역사를 상기시키며 식미지 국민들과 미국의 “자연친화성(natural affinity)”을 선언했다 (Gouda, 2002: pp. 26-28). 또한 동인도 내에서는 독립 운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식민지들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네덜란드령

인도의 사안은 2 차 대전 후의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주된 대상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식민주의•중립주의적 외교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2 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대한 서술 후에 1940 년대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가 논의 될 것이다.

네덜란드는 17 세기부터 인도네시아에 바타비아(Batavia; 현 자카르타)라는 큰 기지를 중심으로 19 세기 마지막 20 년 부터 동인도에 대한 권력을 확고히하고 있었다. 1870 년에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남아시아를 나눌 합의를 보았으며 네덜란드의 네덜란드령 동인도 지배가 공식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역사학에서는 이 시기를 현대적 제국주의의 시기라고 규정한다 (Hellema, 2006: pp. 58-63). 네덜란드는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충돌하는 유럽 열강 중 상대적으로 약한 네덜란드의 국력을 바탕으로 식민주의를 정상화했다. 네덜란드는 자신의 식민주의가 식민지 국민에 대한 자신의 접근이 군사적 권력으로 강요하는 강대국 식민주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네덜란드 보기에는 네덜란드 식민주의는 식민인의 문화를 인식하고 수용했다. 정치적 판단과 문화적 지혜의 조합을 실행하여 식민지를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가 7 천만의 인구를 3 만 병사로 통제하는 사실이 이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관찰자들은 권위와 경제적 착취측면에서 효율적인 네덜란드의 통치 방식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1920-1930 년대에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주의가 확대되면서 동인도 상실에 대한

네덜란드의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Gouda, 1995: pp. 39-48). 이 우려는 1942 년 일본 침략으로 사실 되었다.

초기에 인도네시아인들은 샴(Siam) 제외하고 일본을 서양 제국주의를 저항한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라고 보고 일본 침략자들을 환영했다. 게다가 대동아 공영권(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에 대한 일본의 선전이 인도네시아에 알려졌고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가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었다.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는 동안 국가주의가 확대되었고, 주민단체 등의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수카르노 같은국가주의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제체가 거의 절대적으로 파괴되었다. 이 국가주의의 대두와 네덜란드 체제 붕괴는 2 차 세계대전 후에 발발한 혁명을 발생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Vickers, 2013: 87-88).

2 차 세계대전 후에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둘 다 전쟁 전의 체제 지속을 원하였지만 둘 다 다른 지향이 있었다. 네덜란드 지도자들은 일본 점령 시대에 등장한 인도네시아 지도자를 배제하고 식민지 통치를 복귀시키려고 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의 혁명 지도자들은 전쟁 전에 일으켰던 독립운동을 복귀시켜 인도네시아의 국민을 통합하려고 했다 (Ricklefs, 1993: p. 262). 2 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국가들은 미국을 일본의 재활의 책임자로, 호주를 동아시아의 재활의 책임자로, 그리고 영국을 동남아의 재활의 책임자로 할 것을 협정했다. 항복 조건은 연합국가들이 도착할 때까지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치안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는 일본의 통치가 안정되지 않았고, 8 월 17 일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선언한 국가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 영토의 다수를 지배하고 있었다. 국가주의자들의 지도자는 일본 점령 시대에 지도자였던 수카르노였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일본의 괴뢰 국가였다고 주장했다 (Drakeley, 2005: pp. 74-77). 하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였다. 일본 점령 시대의 흉악, 네덜란드의 오래된 탄압, 그리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도네시아들의 의식은 폭력의 고조화를 초래했다. 국가 통치 없이 사회 여러 차원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을 통하여 폭력이 급히 확대되었다 (Vickers, 2013: p. 10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2 차 세계대전 끝나고열강의 식민지배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식민지배체제가 비식민지화된 국가 보다 공산주의 위협을 더 잘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노력을 유럽의 재활에 집중해야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가주의자들의 외교적 노력이 미국 관변에 점차 공감을 초래하였으며, 보수적인 네덜란드 외교관들이 반대의 인상을 주었다 (Gouda, 2002: pp. 28-31). 1947 년 여름의 네덜란드 1 차 국지적 군사 행동으로 이 인상을 확인되었다. 1 차 국지적 군사 행동은 치안을 복귀시키고 자바와 수마트라의 경제 중심지의 통제를 수복시킬 목적므으로 진행되었고 네덜란드는 이 목적들을 살벌한 방식으로 이루었다. 1 차 국지적 군사 행동으로 인해 대농장이 173 개 수복되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었어도 문제가 해결 되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이 노동자의 다수가 공화국의 영토로

피난을 갔기 때문이었다 (Vickers, 2013: pp. 107-108). 1948 년에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유럽 국가들의 유일한 식민지로써 성공적으로 마샬플랜에 포함되었을 때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네덜란드가 마샬플랜에 동인도의 포함을 네덜란드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위대한 업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초래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다. 네덜란드는 마샬 원조를 네덜란드 통제하는 지역으로만 할당하도록 공화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했다. 때문에 네덜란드 통제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다수에는 생산 어려움과 물가상승이 생겼고 공산주의의 인기가 증가했다. 1948 년 9 월에 이 증가는 커다란 반란(Madiun rebellion)을 초래하였는데 공화국이 이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다 (Gouda, 2002: pp. 32-36). 미국 정부 보기에는 네덜란드의 평가와 달리 공화국이 공산주의 위협을 스스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Vickers, 2013: p. 115). 두 달 후에 네덜란가 취한 2 차 국지적 군사 행동은 공화국을 굴종시킬 네덜란드 정부의 마지막 시도였다. 커다란 유혈로 끝난 2 차 국지적 군사 행동은 유엔과 미국이 조치를 취하게 강요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네덜란드 공격들을 공식적으로 규탄하였고 미국이 1949 년 4 월에 마샬플랜 원조를 중지할 협박을 했다. 때문에 네덜란드는 1949 년 12 월 27 일 원탁회의(Round Table Conference)에 인도네시아 주권을 공화국에게 이양하게 되었다 (Drakeley, 2005: p. 80).

주권 이양은 식민지였던 동인도에서 네덜란드 국익의 끝을 의미하지

않았다. 원탁회의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한 상업적 특권, 인도네시아와 공동 외교정책 그리고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소유를 보존했다 (Meijer, 1994: pp. 44-50). 원탁회의에 네덜란드령 뉴기니 소유에 대한 협상은 논란을 많이 초래했으며 협상을 거의 교착 상태로 만들었다.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는 '주권'이라는 용어를 신중히 피하면서 뉴기니의 현상 (*status quo*)을 당분간 유지하고 뉴기니의 미래 상태에 대해 1 년 내 결정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으로 네덜란드령 뉴기니를 새로운 공화국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는데 네덜란드 국회의사당은 네덜란드에게 유리한 결과가 없으면 원탁회의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Vandenbosch, 1976: p. 105). 네덜란드는 뉴기니를 인도네시아에게 이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인도네시아가 지리•인종적으로 뉴기니 수요에 대한 법•역사적 권리가 공식적 이유였다. 게다가 네덜란드가 보기에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보다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뉴기니를 자치권으로 지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향한 원한과 식민지 다수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점은 네덜란드가 뉴기니를 보존하는 더 중요한 이유였다 (Vandenbosch, 1976: p. 105 / Hellema, 2006: p. 170). 1949 년 원탁회의에 협정된 대로 1950 년 12 월에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상태를 논의하였는데 또다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협상에서 네덜란드는 궁극적으로 뉴기니 주권을 인도네시아-네덜란드 연맹에 귀속시키자는 제안을 했으나 인도네시아는 뉴기니 주권을 반드시

단독적으로 갖으려고 했다 (Metzemaekers, 1951: pp. 137-138). 하지만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가 거부할 제안하고 뉴기니 현상을 지켰다고 하는 제시도 있다 (Tarling, 2000: pp. 178- 181). 뉴기니 지원민의 발전 외에 네덜란드가 뉴기니를 보존하고자 하는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1950 년 8 월에 외교통상부, 인도네시아의 변무관 (High Commissioner), 그리고 지위가 높은 대사 같은 고관의이 참석한 뉴기니의 미래에 대한 회담이 있었다. 회담의 주요 화제는 뉴기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희생들이 할 만한 희생이었는지의 문제였다. 뉴기니 보존을 반대하는 고관들은 뉴기니의 착취를 통하여 받을 경제적 이익이 비현실적이었다고 했다. 게다가 뉴기니 보존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네덜란드의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보존을 찬성하는 고관들은 네덜란드가 뉴기니 보존을 통하여 태평양 권력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뉴기니는 세계무역과 지정학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네덜란드의 역사적 경향을 계속하기 위해 뉴기니의 보존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뉴기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의 주요성도 회담에 확인되었다. 고관들은 뉴기니 문제가 동서문제를 악화시키면 안 되며 특히 호주의 시각이 너무 중요했다고 결론을 냈다. 호주의 지리적 근접과 호주가 동뉴기니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담에 참석한 고관의 다수는 뉴기니의 보존을 찬성하였으며 호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뉴기니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냈다. 또한 가능할 만큼 인도네시아의 허용과 승인을 받을 필요도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고관들은 네덜란드가 뉴기니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가 외무부 장관이 네덜란드 9 월에 방문할 때와 인도네시아가 12 월 뉴기니 회담에 먼저 뉴기니의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3] 앞서 언급한 대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는 둘 다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12 월 뉴기니 회담은 교착 상태로 마무르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허용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호주를 협상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불가능했다.

호주는 네덜란드가 서뉴기니를 통제하는 것을 심하게 찬성했다. 호주는 무엇보다도 뉴기니에 안정한 상황을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호주는 2 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뉴기니를 점령하였을 때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경험했다. 이 경험은 뉴기니가 호주 국가 안보를 위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호주의 신념을 강화시켰다 (Albinski, 1961: 359-360). 때문에호주 외무부 장관은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뉴기니에 대한 네덜란드의 청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령 뉴기니를 통제하게 되면 호주령 뉴기니에 대한 청구도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공산주의 위협이 강화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 위협에 네덜란드 보다 취약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뉴기니를 통제하는 상태가 호주에게 용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게다가 호주 외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뉴기니에 관하여 법•역사적으로 정당한 청구가 없었다는 네덜란드의 제시를 지지했다 (Metzemaekers, 1951: pp. 139-140). 미국과 영국은

[3]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14621, 1950 년 8 월 16 일 Ambassadors Conference.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뉴기니 문제에 관하여 더 중립적 시각을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 차원 의사소통을 통하여 네덜란드가 뉴기니를 통제하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다른 결과가 나오면 반대하지 않을 것도 밝혔다 (Tarling, 2000: p. 180).

그 사이에 마오 쩌둥은 대륙 중국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1949 년 10 월 1 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다. 인도네시아는 150 만 명의 화교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가 공산주의 확산의 다음 도미노 될 신념을 강화시켰다 (Meijer, 1994: p. 252). 따라서 헬레마는 네덜란드가 아시아 지역에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을 승인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Hellema, 2006: p. 158). 네덜란드 정부의 말로 경제적 이유로 1949 년 10 월 14 일에 네덜란드가 중국을 사실상으로(*de facto*) 승인했다. 이렇면서 홍콩에 있는 상업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10 월 7 일에 중국을 승인한 영국을 따랐다. 반면에 미국은 그 때까지 지지한 장제스가 수립한 중화민국(이하 대만)을 지원했다 (Smit and Schot, 1995: p. 41). 네덜란드는 중국을 사실상 승인한 후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승인하도록 중국을 설득해 보았다. 네덜란드는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승인한다면 소련이 인도네시아의 유엔 가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승인할 경우에 네덜란드는 중국을 법률상으로 승인할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와 외교관계를 맺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계획은 실패했다 (Smit

and Schot, 1995: p. 45). 네덜란드 계획이 실패하고 네덜란드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1950 년 3 월 13 일 각료회의에 중국의 법률상 승인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인 스티커(D. Stikker)는 마오 쩌둥이 대륙 중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중국을 장기적으로 지도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승인을 복잡하게 만들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법률상의 승인을 미루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티커는 여기 아마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게다가 중국 문제는 유엔 효율성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유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모든 국제 관계가 악화된다고 했다.[4] 네덜란드 정부 보기에는 봉쇄 정책(containment policy)은 중국을 소련쪽으로 밀어내는 것이고 회유 정책(engagment policy)은 중국을 소련과 맺지 않았던 유고슬라비아와 비슷한 상태로 변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는 중국을 향하여 회유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5]

[4] 네덜란드 국립 보전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2, 1950 년 3 월 13 일 각료회의록.
[5] 네덜란드 국립 보전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15563, 자료번호 5052/2540, code telegram (codtel) to The Hague (DH), 1950 년 9 월 23 일 /네덜란드 국립 보전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15563, 자료번호 3034/694, codtel to DH, 1949 년 10 월 18 일.

III. 네덜란드의 한국 전쟁 참전 결정과정

필자는 이 장에 각료 회의와 외교부의 한국전쟁에 대한 통신을 묘사하고자 한다. 이 묘사는 연대순으로 묘사할 것이며 한두 주제를 다룬 단원으로 구별했다. 모든 단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주된 행정관인 각료 회의에 논의된 주제로 시작한다. 각료 회의 소개하는 짧은 배경도 가끔 있다. 각료 회의를 서술하고 나서 회의에 나온 주제와 다른 해당한 주제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외교부의 통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전쟁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정치를 처리하는 부서였기 때문이다. 유엔과 미국이 한국전쟁의 가장 주요한 주체로써 주미네덜란드 대사관과 뉴욕에 있는 네덜란드 유엔 대표와의 통신은 외교통상부 통신의 다수를 대표한다. 이외에 본장은 네덜란드 영국, 일본, 인도, 캐나다 등의 대사관과의 통신과 외교통상부 내부적 통신도 언급한다.

1. 전쟁 초기 네덜란드 정부의 태도

북한 군대의 6 월 25 일 남진은서양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권과의 무력 분쟁을 예상하였는데 충돌이 이렇게 빠르게 발발한 것을 아무도 예상 못 했다. 미국에서 주둔된 네덜란드 해군 고관의 보고서는 북한군의 공격이 미국 중앙정보부 (CIA)와 국방부한테도 커다란 충격이었다고 했다. 이 해군 고관은 뒤돌아보면서 북한이 택한 날짜와 시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멸망, 슈만-

플랜에 관한 영국의 정치적 어려움, 소련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참여 거부, 아시아지역에서 대만의 정치적 주요성,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주말이었단 것은 협조된 반응을 하는 광정을 조직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6]

전쟁 발발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첫 공식적인 성명은 6 월 29 일에 발표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북한군의 치안방해에 대한 근심을 표현하였으며 유엔 안보리 82 및 83 번 결의안에서 정된 수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네덜란드가 국제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취할 거라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한반도 지역에 필요한 수단에 참여할 해군을 파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했다.[7] 이 공식적 성명 전인 6 월 26 일에 각료 회의가 있었다. 이 희의에 한국전쟁 발발을 짧게 논의되었다. 외무부장관인 스티커(D. Stikker)는 한국전쟁이 미국과 소련 간에 대리전쟁이라고 한단 언론발표문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무총리인 드레이스(W. Drees)는 미국이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단호한 반응이 없었으면 다른 국가들도 공산주의 무력 공격 경우에 미국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8]

앞서 쓴대로 미국에서 첫 반응들은 놀란 반응들이었다. 공격을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제대로 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첫 자료는 주미네덜란드

---

[6] 네덜란드 국립 보전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I-20/875 1950년 6월 28일.
[7] <부록 1.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6 월 29 일 공식적인 성명>.
[8] 네덜란드 국립 보전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2, 각료회의록 1950년 6 월 26일.

대사관과 헤이그에 있는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간의 통신이다. 이 자료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표현되어 있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갈등이 냉전에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테스트케이스(testcase)인 것을 깨달았다.[9] 미국은 한국이 미국 지원이 도착했을 때까지 공격을 미룰 수 있다고 바랐다. 미국은 필요할 만큼 지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지원이 어떠한 형식으로 보낼 것이었는지 네덜란드 주미 대사인 로이흘린(O. Reuchlin)에게 분명하지 않았다.[10] 이것은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라는 6 월 27 일에 유엔 안보리 83 번 결의안을 통하여 분명해졌다.[11]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H. Truman)의 당일에 성명은 "I have ordered United States air and sea forces to give the Korean government troops cover and support"이라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발표했다. 트루먼은 공산주의자들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었으면 태평양의 안보를 위협하니까 7 함대가 대만을 보호하러 대만에 보냈다.[12] 그날에 케난(G. Kennan)은 네덜란드 대표를 비롯한 워싱턴에 배치되어 있었던 대사들을 한반도 문제에

[9] 네덜란드 국립 보전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573, codtel to DH, 1950년 6월 25일, Reuchlin (reuch) 68.
[10] 네덜란드 국립 보전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567, codtel to DH, 1950 년 6 월 26 일 reuch 69.
[11] <부록 2. 유엔안전 보장 이사회 83 번 결의안, 1950 년 6 월 27 일>.
[12] <부록 3. 트루먼의 1950 년 6 월 27 일 성명>.

대한 회담에 초대했다. 이 회담에 케난은 미국의 강경 반응이 단지 한반도의 전략적 의미 때문 아니었다고 밝혔다. 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에 향한 어마어마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애매한 반응은 일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대만이 공산권의 다음 목적이었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다. 때문에 대만에 관한 조치는 동양 상황이 미국 정부에게 강요한 단기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13] 그런데 이하 분명해질 대로 바로 이러한 대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네덜란드 정부에게 아주 민감한 점이었다.

네덜란드가 이러한 한반도에 관한 지원에 참여할지 첫 요청은 미국 유엔 대표단이 했다. 미국 유엔 대표단은 태평양 권력들으로써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그리고 뉴질랜드에게 상징적 군사적 지원("token force")을 파병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북한 침략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미국의 태도를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네덜란드의 유엔 대표인 번 발루섹(J. Von Balluseck)은 네덜란드에게 한반도 문제가 윤엔의 효율성과 미국의 태평양 권력에 대한 테스트케이스였다고 미국 대표단에게 지적했다. 번 발루섹은 미국 대표단에게 네덜란드 정부가 군사적 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헤이그에게 지적했다. 이러므로 네덜란드가 네덜란드령 뉴기니에 관하여 미국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련이

[13] 네덜란드 국립 보전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593, codtel to DH, 1950 년 6 월 27 일 reuch76.

북한 군대를 후퇴시킬 기회를 주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소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잘 되었다는 것을 미국 대표단에게 지적했다.[14] 그 다음 날에 네덜란드 주미대사관는 미국 국무부가 심리적 계기 때문에 태평양 권력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적 전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15]

네덜란드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관관리부는 유엔 안보리 83 번 결의안의 결론을 분석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다룰 수 있는 조치를 추춘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본 보고서는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e not explicitly obliged to support Korea. It is however recommended that the Netherlands government will contribute in the support to South Korea to strengthen our position in Asia. Dispatching a token force will suffice. Furthermore, the department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resolution stated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should be restored]." It could therefore be considered to offer a symbolic contribution in the form of , for example a destroyer, which could be sent to korea, but also Formosa or Malakka"다고 해석했다.[16] 이틀 후에 외교통상부의 동아시아관리부는 3 차 세계대전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동양 지역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14] 네덜란드 국립 보전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codtel from DH, 1950 년 6 월 27 일 Von Bal 13.
[15] 네덜란드 국립 보전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600, codtel to DH, 1950 년 6 월 28 일 Reuch77.
[16]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6409, Internal Memorandu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IO), 1950 년 6 월 28 일.

적극적인 지원이 미룰 수 없다는 다른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동아시아관리부는 대만에 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동아시아의 상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낸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태도가 미국의 의도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심을 강화시킨다는 결론을 냈다.[17] 그러므로 동아시아관리부는 스티커한테 보낸 메모에 미국 지휘하에 네덜란드 구축함을 대만 영해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했다.[18]

따라서 한국전쟁 발발 후의 첫 주는 네덜란드와 미국 정부에게 상태를 평가하는 주였다고 말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미국 정부는 둘 다 북한군의 침략을 비난했다. 그런데 미국이 바로 군사적 지원을 보낸 대신에 네덜란드 정부가 조금 더 주저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약화시키도록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한반도 문제와 중국/대만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2. 에베르트센 구축함의 파견과 중국 문제

한국전쟁이 발발한 일주일 뒤에 로이홀린는 한국전쟁 첫 주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를 논의하는 유럽 문제 담당 국무 차관인 퍼킨스(G. Perkins)와 만남이 있었다. 퍼킨스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점령이 소련의 종합계획의 첫

[17]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6409, Memorandum Department of East Asian Affairs (DEAA) to Boon, 1950 년 6 월 30 일.
[18]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6410, Memorandum Department of East Asian Affairs to Stikker, 1950 년 6 월 30 일.

단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였다. 1949 년 미국 군대의 한반도 철수와 애치슨라인의 선언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아무 노력 없이 점령하는 유혹이 소련한테 단지 너무 커진 것이였다. 마지막으로 퍼킨스는 전쟁의 발발의 혼란 때문에 전쟁 군사 정세를 평가하는 것이 아직 어려웠다고 밝혔다.[19] 며칠 지나가서, 헤이그는 한반도 상태가 심각하지만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네덜란드 주일대사관한테 받았다.[20] 그 당일에 트루먼은 미군 인원 한도를 넘기를 허용했다.[21] 7 월 11 일에 네덜란드 총무부는 한반도 상태의 발전에 대하여 미국의 평가가 아주 부관적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 사령부에 따르면 부산에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 궁여지책이었으며, 이것을 실시한 다음에 한반도 남쪽에 싸우는 부대를 풀리기 위하여 38 도선 북쪽에 상륙작전이 가능했다.[22]

7 월 3 일에 주 1 회 하는 각료 회의가 있었다. 7 월 3 일 회의에 동아시아관리부가 제안한 대로 구축함의 파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드레이스는 당시 인도네시아에 주둔된 에베르트센(Evertsen)이라는 구축함을 파병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다른 장관들이 모두 동의했다. 또한 드레이스는 에베르트센이 한국 영해에서만 행위를 허용되어 있으며, 트루먼

[19]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635, codtel to DH, 1950 년 7 월 3 일 Reuch86.
[20]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668, codtel to DH, 1950 년 7 월 8 일 Mouw 48.
[21]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666, codtel to DH, 1950 년 7 월 8 일 Reuch 95.
[22]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3.01, 인벤토리번호 2359, Internal Memorandum Ministry of General Affairs, 1950 년 7 월 11 일.

성명을 반대하고 대만 필리핀 영해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게다가 드레이스가 에베르트센이 미군 지휘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도 근심을 표현했다. 이러한 것이 네덜란드와 미국 외교정책 너무나 연결시켰기 때문이었다. 경제부 장관이었던 반 브링크(J. Van Brink)와 해외영토 경제관리부 장관인 괴첸(J. Goetzen)은 구축함이 미국지휘하 아니였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드레이스는 에베르트센이 미군 지휘하에 있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이 지휘가 네덜란드 정책과 충돌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23] 스티커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와 함께 에베르트센을 지휘하고 있었으니까 에베르트센의 파병을 요청하는 전보를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보냈다. 스티커는 구축함이 한반도 문제에만 지원하고 대만인다 필리핀 영해에서 행위를 안 할 것을 강조했다. 게다가 구축함이 미군 지휘 아니라 유엔군 지휘하에 파병되었다는 것도 강조했다.[24]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전쟁 시초에 에베르트센의 파병을 통하여 일조하기로 했다. 구축함이 대만 영해 아니라 한반도 영해로만 파견될 것을 강하게 강조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을 인정하였으니까 한반도 문제와 중국/대만 문제를 구별하고 싶었다. 이 점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처음으로 인정한 영국 정부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고

---

[23]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3, 각료회의록 1950 년 7 월 3 일.
[24]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639, codtel to Jakarta, 1950 년 7 월 3 일 Stikker 74.

판단했다.[25] 영국 정부는 마오 쩌둥이 미국의 7 함대 파견을 도발로 이해할 수 있어서 미국의 7 함대 파견에 대한 근심을 표현했다. 이러한 파견이 한반도 문제와 중국/대만 문제를 연결시켰기 때문이었다.[26] 캐나다 정부도 미국의 7 함대의 파견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다.[27] 북한과 중국에 향한 무역 제재를 시행되었을 때 미국과 네덜란드 외교정책 간에 또 다른 마찰은 나타났다. 미국 관점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은 석류를 북한과 중국으로 수출해서 간접적으로 북한의 침략을 가능하게 했다. 로이흘린은 미국 국무부가 "아주 비정상한" 요청을 했다고 헤이그에게 알려주었다. 즉, 북한에 향한 무역 제재를 지원하고 준수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explicitly) 요청했다.[28] 7 월 13 일에 시애틀 포스트 신문에 네덜란드가 북한과 중국으로 석류를 수출을 비판하는 기사가 출판되었다. 7 월 15 일에 스티커는 북한에 향하여 완전한 금수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로이흘린에게 답장을 썼다. 그러나 중국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일치하지 않으며 네덜란드 정부가 이 두 문제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향하여 유엔 조치가 없어서 무역 제재를 시행할 기초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25]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2701, 자료번호 174, DIO to Boon, 1950 년 7 월 3 일.
[26]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645, codtel to DH,1950 년 7 월 4 일 Michiels 55.
[27]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690, codtel to DH, 1950 년 7 월 13 일 Lovink 27.
[28]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672, codtel to DH, 1950 년 7 월 9 일 Reuch 96.

불구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에 향한 무역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섰다.[29] 스티커는 아시아 국가가 금수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다른 전보에 표현했다.[30]

3. 전투부대 파병 여부에 대한 논란

7 월 17 일 각료 회의에 스티커는 유엔이 한국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할 수 있는지 네덜란드에게 요청한 것을 발표했다. 드레이스는 네덜란드 국방과 파병의 비용 때문에 네덜란드가 전투부대를 파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드레이스가 송환하고 있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육군(Royal Netherlands East Indies Army/RNEAA)의 병사들이 의용병으로 파견할 수도 있다고 제시햐였다. 해외영토부 장관인 반 마르스베인(J. Van Maarseveen)은 RMEAA 병사들이 이러한 파견을 위해 적당하지 않으며, 정부가 네덜란드 육군 병사들을 파견하면 네덜란드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커는 네덜란드 국방이 아직 너무 약해서 파견하지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전쟁부 장관인 스흐어킹(W. Schokking)도 네덜란드 전투부대 파견을 반대했다. 파병하고자 한다면 해병대를 파견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의용병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았다. 정부가

[29]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708, codtel to Washginton DC (DC), 1950 년 7 월 15 일 Stikker 94.
[30]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709, codtel to London (LON), 1950 년 7 월 15 일 Stikker 88.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모집 안 하는 것 나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31]그날에 미국은 유럽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인들을 한국으로 파병하지 않을 것을 로이흘링에게 "아주 확고히" 밝혔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하지 않은 결정을 지켰다. 로이흘링은 네덜란드 정부가 "실제적인 난관" 때문에 파견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미 미국 언론에게 알려주었다.[33] 다른 유엔 가맹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가 힘든 미국 정부에 대한 뉴욕타임스에서 출판된 기사에 대응하여 미국 언론에게 통보를 보냈다. 이 기사는 네덜란드가 송환할 3 만 병사들을 파견할 수 있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34] 7 월 19 일과 20 일에 네덜란드 외교통상부는 네덜란드가 전투부대를 파견하지 못 한다는 전보를 네덜란드 주미대사관과 네덜란드 윤엔 대표단에게 보냈다. 네덜란드는 그야말로 병력이 없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은 국방을 위해 필요한 병사들이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둔하는 병사들을 일단 송환해야 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또한 한국전쟁에 중립을 지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용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네덜란드 지휘 하에 있는 인도네시아 병사도 파견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35] 미국

---

[31]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3, 각료회의록 1950 년 7 월 17 일.
[32]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719, codtel to DH, 1950 년 7 월 17 일 Reuch 107.
[33]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727, codtel to DH, 1950 년 7 월 18 일 Reuch 110.
[34]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931/1971, codtel to DH, 1950 년 7 월 18 일 Reuch.
[35]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2701, Internal Memorandum DIO, 1950 년 7 월 19 일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codtel to DC, 1950 년 7 월 20 일 Stikker.

언론의 반응이 매서웠다. 영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지원을 찬사하면서 “one country is letting us down: Holland”이라고 썼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온 네덜란드 병사들의 환영의 사진들이 언론에 나타났다.[36]

그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세가 대폭 철저하게 악화되었다. 로이홀린은 전쟁 초기의 나쁜 결과들이 미국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공권이 전쟁의 결성적 요인일 판단이 오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사실상 북한의 전차들이 전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 공군은 아직 미국에서 도착하지 않은 미국 육군과의 전술적 협력에 집중하게 되었다.[37] 도쿄 대사관은 미국 육군 사단 7 개 7 월의 마지막 주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다. 당시 이 7 사단은 북한 사단 7 개 (그리고 비축되어 있는 3-4 사단)와 전투하고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이 증강 병력이 북군을 후퇴시킬 수 있는지, 부산 근처에 교두보가 필요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38] 며칠 후에 군사 정세가 평가 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예상한 7 북한 사단은 사실상 15 개였다.[39] 마닐라에서 온 전보는군사적 정세가 방어할 수

[36]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2701, Memorandum Netherlands Information Bureau, 1950 년 7 월 28 일 Von Bal.
[37]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889/1961, codtel to DH, 1950 년 7 월 17 일 Reuch.
[38]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765, codtel to DH, 1950 년 7 월 24 일 Mouw 59.
[39]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795, codtel to DH, 1950 년 7 월 30 일 Mouw 64.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모든 병력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컸다고 전했다.[40]

군사 정세가 최악의 경우에 군사적 지원의 필요성은 미국에게 더 급했다. 이러한 지원 없이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 캐나다의 네덜란드 대사인 로빙크(A. Lovink)는 군사적으로 전쟁을 단순히 승리할 수 있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다른 국가들의 상징적 병력이 필요했다는 점을 전보에 지적했다.[41] 이 정치적 이유는 미국이 유엔 권한 내에 아니라 한반도에 혼자서 전투 하고 있는 기회를 소련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는 점이었다.[42] 때문에 미국이 네덜란드를 비롯한 다른 유엔국가에 전투부대를 파견하도록 강요했다.

8 월의 첫 각료 회의에 네덜란드 정부는 전투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을 널리 논의되었다. 회의 초에 드레이스는 미국의 네덜란드 대사인 채핀(S. Chapin)과 미국 기자인 모우러(E. Mowrer)가 드레이스를 별도로 방문했다고 공유했다. 네덜란드 국기도 한반도에 있는 것이 미국과 유엔에게 중요하였으니까 네덜란드가 상징적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드레이스는 다른 국가들도 전투부대를 파견하기로 했으니까 회의에 파병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드레이스가 인도네시아에서 송환한 해병대와 낙하산 부대 등의 의용병들만 파견하고 싶은 것을 강조했다.

---

[40]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793, codtel to DH, 1950 년 7 월 29 일 Toussaint 18.
[41]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753, codtel to DH, 1950 년 7 월 21 일 Lovink 30.
[42]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625, codtel to DH, 1950 년 6 월 29 일 Vreede.

스흐어킹도 그 주에 자신을 방문하러 온 미국인이 있었다고 했다. 즉, 미국 상원의원인 캐인이 스흐어킹을 찾으러 왔다. 스흐어킹은 낙하산 부대와 대체로 인도네시아에서 주둔되어 있는 비행사밖에 파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티커는 네덜란드 국방이 더 중요하였으며 네덜란드가 유엔에게 지원 할 것을 별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신에 구급차를 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스흐허킹은 캐인이 구급자와 참관인이 이제 필요없다고 한 것을 명시했다. 캐인이 상징적 전투부대만 가치가 있었다고 했다. 드레이스는 해병대와 낙하산부대에 의용병을 모집하는 것을 제시하며, 스흐어킹은 이 의용병들이 네덜란드 국적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흐어킹은 모집된 의용병으로 중대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이 중대를 파견하면 되겠다고 했다. 장관들이 모두 스흐어킹과 동의한다.[43] 그날 로이흘린은 한반도의 불리한 상태가 희생양의 필요성을 초래하였으며, 미국 언론이 네덜란드도 비난하고 있었다고 했다. [44] 전쟁부 차관인 포케마 안드레이에(W. Fockema Andreae)는 이틀 후에 오던어휴라고 하는 외교관이 네덜란드 정부가 전투부대를 파병할지 요청했다고 의사소통을 전했다.[45]

8 월 7 일에 또 다른 각료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 스흐어킹은 전문적인 해병 중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육군도 낙하산부대,

---

[43]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3, 각료화의록 1950 년 8 월 2 일.
[44]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230/2118, codtel to DH, 1950 년 8 월 2 일 Reuchlin.
[45]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2701, 자료번호 1338/50, Internal Communication MOFA, 1950 년 8 월 4 일 Fockema.

특수부대, 그리고 척후병으로 구성된 중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했다. 드레이스는 저번 회의에 의용병들만 파견하기로 한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적 해병대를 파견하지 못 한다고 했다. 반 마르스베인은 네덜란드의 군사적 지원이 미국 여론에 유리한 상징적 지원이기 때문에 해병도 파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유럽이 자유진영의 다른 국가를 지원 하지 않으면 서유럽에 전쟁이 생길 경우에 미국이 서유럽을 왜 지원하겠냐고 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래도 드레이스는 해병을 의무적으로 한반도에 파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드레이스는 일단 육군 의용병을 모집해 보고, 의용병이 충분하지 않으면 해군 의용병을 모집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른 장관들도 모두 동의했다.[46] 8 월 10 일 스티커는 네덜란드 정부가 육군 중대와 해군 중대를 하나씩 파견할지 고려하고 있다는 전보를 네덜란드 대사들에게 보냈다. 파견할 경우에 의용병들만 파견될 것이라고 명시했다.[47]

그 사이에 번 발루섹은 한반도 문제에 맥아더 장군의 애매모호한 역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당혹에 대한 흥미로운 전보를 보냈다. 윤엔군 사령관과 미극동군 사령관으로써 맥아더가 지휘하는 병력들은 한반도와 대만에서 주둔하고 있었다. 또한 번 발루섹은 많은 고관들이 서유럽과 미국의 재군비가 커다란 재정적 희생과 인신 희생을 요구한다고 깨닫고

[46]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3, 각료회의록 1950 년 8 월 7 일.
[47]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832, codtel to DC, 1950 년 8 월 10 일 Stikker 158.

있으며, 이러한 희생들이 공산주의 선전을 위해 유리한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고 섰다. 번 발루섹은 그러한 배경으로 맥아더가 장제스를 방문한 것을 미국에서 주목을 상당히 받았다고 했다. 다른 국가 유엔 대표단의 의지와 달리 한반도와 대만으로 파병한 결정을 동시에 한 미국 정부가 맥아더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와 중국 문제를 연결시켰다고 썼다. 하지만 맥아더의 대만 방문이 어느정도 미국 국무부 아시아와 유엔 정책과 조응하는지 미심하다고 했다. 맥아더가 트루먼한테 질책 받은 소식이 미국 언론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48]

4. 의용병사 모집에 대한 논의

8 월 11 일에 네덜란드 정부는 해군 중대와 육군 중대를 하나씩 한반도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론에 선언했다. 그러나 그 당일에 로이흘린은 미국 국무부가 한 대대(battalion)나 1000 명 들어가는 병력 지원만 받는다고 알려줬다는 전보를 헤이그로 보냈다.[49] 네덜란드 장관들은 이 조건을 8 월 14 일 회의에 짧게 논의되었다. 드레이스는 1000 명을 보내라는 미국의 요구를 순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50] 하지만 8 월 16 일에 네덜란드 외교통상부는 3 일 간에 해산된 RNEAA 군인 중 1044 명이나 의용병으로 지원했다고 선언했다. 당번인 군인들도 의용병으로 모집될 수 있었으나 이

[48]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1981/540, codtel to DH, 1950 년 8 월 7 일 Von Bal.
[49]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839, codtel to DH, 1950 년 8 월 11 일 Reuch 137.
[50]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3, 각료회의록 1950 년 8 월 14 일.

숫자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이 숫자가 몇백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용병사들이 8 월 21 일까지 모집될 예정이었다.[51] 8 월 21 일에 각료 회의에서 스흐허킹은 해병 250 명과 육군 1800 명이 모집되었다고 공유했다. 드레이스는 중대를 구성할 해병이 충분하지 않아서 육군 중대를 2 개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포케마 안드레이에는 육군 대대를 파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52] 모집된 의용병 중에 적격자 30%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8 월 28 일 각료 회의에 명백해졌다. 네덜란드 정부는 연령, 경력, 건강에 관한 엄격한 자격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스흐어킹은 육군 대대 하나의 파견을 제안했다. 다른 장관들이 모두 동의했다.[53]

그 동안 워싱턴과 뉴욕에 배치되어 있던 네덜란드 대표들은 헤이그로부터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다. 8 월 23 일에 미국에 있는 네덜란드 정보부 (Netherlands Information Bureau)는 거의 다 인도네시아에서 싸웠던 네덜란드인 2000 명이 의용병으로 지원했다는 소식을 공보로 선언했다. 공보는 “on August 11, the Netherlands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is considering to place a company of marines and a company of army forces at the disposal of the United N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struggle against the North Korean aggression”라고

[51]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없음, codtel to DC, 1950 년 8 월 16 일.
[52]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3, 각료회의록 1950 년 8 월 21 일.
[53]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3, 각료회의록 1950 년 8 월 28 일.

했다.[54] 공보가 구식 정보를 선언한 사실은 네덜란드 정부와 미국에 배치되어 있는 네덜란드 대표들 간의 의사소통의 연장을 잘 나타낸다. 게다가 8 월 24 일에 로이흘린과[55], 8 월 29 일에 번 발루섹[56], 그리고 로이흘린의 계승자인 반 로이엔(J. Van Royen)은[57] 한반도에 네덜란드의 파병에 대한 소식이 없다고 하며 선전을 위한 정보를 요청하는 전보를 보낸 사실을 통해 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9 월 7 일에 스티커는 네덜란드 대표들의 요청을 응답했다. 네덜란드가 3 중대가 될 수도 있는 2 중대를 파견할 계획을 유엔 사무총장인 리(T. Lie)에게 알려주라는 요청을 번 발루섹에게 그 날에 보낸 전보로 보냈다. 뿐만 아니라 스티커는 네덜란드 대대가 영국의 보급선에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요청을 번 발루섹에게 했다.[58] 번 발루섹은 네덜란드 정부의 파병 계획을 바로 리에게 알려우었고 영국 보급선에 대한 문의도 했다.[59] 그 다음 날에 번 발루섹은 군사전략적 논의를 앞으로 워싱턴과 해야 하는 것을 헤이그에게 통신했다. 때문에 번 발루섹은 네덜란드 파병 계획과 아울린 문의를 반 로이엔에게 통신했다고 스티커에게

---

[54]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2701, Press Statement, 1950 년 8 월 23 일 Netherlands Information Bureau (DC).
[55]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909, codtel to DH, 1950 년 8 월 24 일 Reuch 154.
[56]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2701, 자료번호 2239, codtel to DH, 1950 년 8 월 29 일 Von Bal.
[57]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974, codtel to DH, 1950 년 9 월 5 일 Roij 170.
[58]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3983, codtel to NY, 1950 년 9 월 9 일 Stikker 99.
[59]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없음, Statement to UNSG, 1950 년 9 월 7 일 Von Bal.

알려주었다.[60] 그 날에 반 로이엔은 미국이 네덜란드의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한다는 전보를 보냈다. 최소한의 기준이 대대였어도에 불구하고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했다. 보급선에 대한 문의가 나중에 미국 국방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61]

네덜란드가 전투대대를 파병할 계획을 선언한 후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통신이 한 삼 주일 동안 없었다. 이것은 헤이그가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네덜란드 대표들에게 통신을 보내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마지막 전보 일주일 후에 유엔군은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유엔군은 곧 한반도 남쪽을 점령하게 되고 38 도선을 접근하게 되었다. 많은 고관들이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엔군이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파병의 취소까지도 논의했다.[62] 외교통상부 내부적 협의와 채핀의 제안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정은 네덜란드가 국제 평화를 지키는 작업에 일초하는 결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63] 하지만 이러한 발전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세는 사실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

[60]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002, codtel to DH, 1950 년 9 월 8 일 Von Bal 52.
[61]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001, codtel to DH, 1950 년 9 월 8 일 Roij 179.
[62]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3, 각료회의록 1950 년 10 월 2 일.
[63]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3.01, 인벤토리번호 5179, Internal Memorandum, 1950 년 10 월 3 일 Boon.

5. 38 도선 이북으로의 북진 결정을 둘러싼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

38 도선을 넘어 가는 것은 네덜란드 외교정책과 미국 외교정책 간에 주된 논쟁점이 되었다. 이미 7 월 5 일에 네덜란드 정부는 38 도선 건너가는 가능성에 대한 근심을 표현했다. 스티커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한국의 결심을 고려하여 전쟁 발발이 한국의 도발의 결과였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론돈으로 보낸 전보에 주장했다. 스티커는 한국군이 북한군을 후퇴시키고나서 38 도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스티커는 소련과 중국이 미국이 통제하는 한반도를 받아드리지 못하며, 이것이 3 차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스티커는 영국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와 함께 한국이 38 도선을 넘어가지 않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요청을 네덜란드의 영국 대사관에게 했다.[64] 이 희망은 헛된 희망이었다. 8 월 말에 번 발루섹은 하이드(J. Hyde)라는 미국 유엔 대표단의 정치고문관과 만남이 있었는데 38 도선 넘어가기가 대화 주제로 나왔다. 하이드는 맥아더가 전략을 새우는 과정에 군사적 요인만 고려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 다음에 하이드는 미군이 38 도선에 막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65]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한반도 군사 정세가 완전히 바꿨으며, 9 월 말에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근심이 심해지고 있었다. 중화 인민 공화국에 배치된 네덜란드의

[64]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2701, 자료번호 없음, Memorandum to LON, 1950 년 7 월 5 일 Stikker.
[65]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2185/596, codtel to DH, 1950 년 8 월 24 일 Von Bal.

대표인 데 보흐드(J. De Voogd)는 중국이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다는 트루먼의 선언이 맥아더의 행동을 볼 때 거짓 약속으로 보이며, 이 선언을 믿고 싶지 않고 믿기가 무섭다고 지적했다.[66] 38 도선을 넘어가는 사안에 대한 국제 비난에도 불구하고 트루먼은 9 월 27 일의 국가 안전보장회의 81/1 번 결정을 통하여 이를 맥아더에게 허용했다. 그런데 트루먼은 유엔의 허용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9 월 29 일에 내덜란드의 모스크바 대사관은 모스크바에 있는 다수의 대사관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 도선을 넘어가기가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는 전보를 보냈다. 특히 군 장교들이 북한군이 재편성할 기회를 받으니까 38 도선에 막기가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북한군이 재편성할 경우에 침투가 끊임없이 있으면서 대립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군 장교들이 마오 쩌둥이 유엔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걸아고 했다. 이 판단들이 다 론돈과 워싱턴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모스크바 대사관의 전보는 유엔군이 38 도선을 건너가면 공산주의 선전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건너가지 않으면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선전 더 심하다고 했다.[67] 네덜란드의 일본 대사인 마우(H. Mouw)는 도쿄에 있는 38 도선 건너기애 관하여 다수의 외교관과 군 장교의 의견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있는 전보를 보냈다. 이들이 한국군에게

[66]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124, codtel from Beijing (PEK), 1950 년 9 월 25 일 Voogd 41.
[67]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165, codtel to DH, 1950 년 9 월 29 일 Moscow 16.

반격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마우는 맥아더에게 위협이 그다지 없으므로 38 도선을 건너고 싶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소식통한테 들었다고 했다. 맥아더가 보기에는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고 싶었다면 더 유리한 상황에 이미 개입했을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마우는 트루먼이 맥아더에게 38 도선을 넘어가도 된다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68] 그 다음 날에 런던 대사관은 영국이 한반도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 군사 기구를 파괴해야 하며 38 도선을 건너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전보를 보냈다.[69]

10 월 초에 유엔군이 38 도선을 건너갈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10 월 7 일에 유엔 총회가 맥아더에게 필요할 조치를 취하는 것의 허용에 대한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미국은 '필요할 조치'를 38 도선을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했다. 10 월 7 일의 유엔 총회의 회의 전에 데 보흐드(네덜란드의 중국 대표)는 중국에서 증가하는 근심에 대한 전보를 여러 가지 헤이그에게 보냈다. 10 월 2 일에 전보를 두 개 보냈다. 첫 전보는 9 월 21 일에 주은래가 미국이 38 도선을 건너가면 중국이 개입한다고 인도의 중국 대사인 파니카(K. Panikkar)에게 밝혔다고 했다. 9 월 25 일에 중국 참모총장은 이것을 파니카한테 확인했다. 중국 참모총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전쟁이 중국의 발전을 얼마나 저지하는지 알고 있지만 저항하지

[68]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195, codtel to DH, 1950 년 9 월 29 일 Mouw102.
[69]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167, codtel to DH, 1950 년 9 월 30 일 London 136.

않으면 미국이 중국을 영구적으로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70] 둘째 전보는 베이징이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는 우려를 표현했다. 미국이 종전 후에 철수한다는 약속이 이 우려를 없앴지 않았다. 데 보흐드는 중국 엄포를 놓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인정했지만 중국 개입의 위험이 아직 심각하다고 했다.[71] 따라서 10 월 3 일에 동아시아관리부는 중국 개입에 대한 네덜란드의 시각을 미국 정부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동아시아관리부는 중국의 우려가 진실이었으며 우려가 좋은 고문이 아니라고 했다. 동아시아관리부는 미국와의 전쟁에 대한 혐오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38 도선을 건너가기로 인하여 중국의 국익이 해치되면 중국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72] 네덜란드 정부의 근심은 미국이 스티커에게 네덜란드 우려의 원인에 대해 문의할 정도가 진지했다.[73] 때문에 10 월 4 일에 채핀이 스티커를 방문하였고 스티커한테 데 보흐드의 이틀 전에 표현한 고민을 들었다.[74]

그 당일에 스티커는 유엔 총회가 10 월 6 일에 논의할 결의안에 관한 개정을 하라는 전보를 번 발루섹에게 보냈다. 개정은 항목이 4 가지 있었다. 첫 항목은 북한이 본 결의안을 준수하는 의무를 표현하였으며, 둘째 항목은

---

[70]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2694, 자료번호 13076, codtel to DH, 1950 년 10 월 2 일 Voogd 43.
[71]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211, codtel to DH, 1950 년 10 월 2 일 Voogd 44.
[72]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22701, Memorandum DEAA to Boon, 1950 년 10 월 3 일.
[73] Foreign Relations US 1950, Vol. VII, p.866.
[74]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213, codtel to DC, 1950 년 10 월 4 일 Stikker 270.

10 월 31 일 전까지 북한이 본 결의안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표현하였으며, 셋째 항목은 북한이 답할 때까지 유엔군이 38 도선을 건너가지 못 하는 요청을 표현하였으며, 넷째 항목은 북한이 본 결의안을 묵살할 경우에 맥아더가 유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허용을 담고 있었다. 스티커는 본 개정이 38 도선을 건너가는 대상이 중국 아니라 북한인 것을 명시해서 중국과 미국 간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75] 네덜란드 정부가 38 도선을 건너가기를 미루는 개정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실은 중국 개입에 대한 네덜란드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잘 드러낸다. 하지만 유엔과 미국에 네덜란드의 대표들의 반응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10 월 5 일에 헤이그는 번 발루섹과 반 로이엔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번 발루섹은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표현했다. 일단 번 발루섹은 유엔 총회의 달성한 일을 다 돌이키며 개정은 소련에게 유엔 총회를 양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제공한다고 했다. 번 발루섹은 네덜란드의 개정의 내용에 대한 비난도 여러 가지 했다. 첫째 비난은 개정이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 안보리의 관할권을 위반한다는 점이었으며, 둘째는 개정이 그때까지 피했던 기한을 시행한다는 점이었으며, 셋째는 개정이 북한에게 군대를 재편성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유엔군의 유리한 위치를 없애고, 전쟁을 연장하면서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시키지 않다는 점이었으며, 넷째는 안보리

[75]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235, codtel to New York (NY), 1950 년 10 월 4 일 Stikker 165.

82 번 결의안이 이미 북한에게 침략을 막으라는 의무를 표현하였는데 북한이 이 의무를 묵살하였던 점이었다. 번 발루섹은 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엔 총회 대표인 그로스에게 네덜란드 정부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썼다. 번 발루섹은 그로스의 반응이 "100% 부정적"이었다고 썼다.[76] 반 로이엔은 극동 문제 담당 국무 차관인 러스크(D. Rusk)한테 개정에 대한 논의하자는 급한 요청을 받았다고 썼다. 러스크는 반 개정이 "처참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반 로이엔에게 강조했다. 러스크는 개정이 많은 목숨의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에게 재편성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 개입의 가능성이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러스크는 마오의 선언이 엄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미국 정부에게 확실하다고 했다. 러스크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을 설득한다고 강조했다. 러스크는 네덜란드의 중국 대표가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에 도와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러스크는 마지막으로 소련과 중국의 태도가 유엔 총회의 우유부단한 결의안을 지양하고 미군을 쇠진할 유격전을 벌일 목적을 가져 있다고 했다. 러스크는 38 도선을 건너가기를 미루는 개정이 이러한 의도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77] 그 다음날에 반 로이엔이 보낸 전보는 미국의 악의적인 언론이 네덜란드의

[76]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163, codtel to DH, 1950 년 10 월 5 일 Von Bal 74.
[77]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229, codtel to DH, 1950 년 10 월 5 일 Roij 220.

개정을 네덜란드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78] 네덜란드 대표들의 비난과 미국의 압박으로 인하여 스티커는 10 월 6 일에 개정을 제출하지 마라는 전보를 번 발루섹에게 보냈다.[79] 스티커는 개정이 비실용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미국의 질책 때문에 타락한 느낌도 든 것 같다. 10 월 6 일에 스티커는 38 도선을 건너가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중국을 설득하는 러스크의 요청을 전하는 전보를 데 보흐드에게 보냈다. 스티커는 공산권과의 네덜란드의 유용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요청을 지킬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80] 데 보흐드는 스티커와 동의한다고 답했다. 데 보흐드는 이러한 조치가 서양이 중국에 대해 음모를 꾸미며 네덜란드가 미국의 졸개인 것 같다는 중궁의 의심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썼다.[81] 유엔 총회가 결의선을 채택하고나서 10 월 13 일 전후에 중국군 4 사단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정보가 헤이그에 도착했다.[82] 얼마 후에 중국군의 완전한 개입이 사실화 되었다.

전투부대들 출발하기 이틀 전에 드레이스는 한반도로 떠날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언했다:

---

[78]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233, codtel to DH, 1950 년 10 월 6 일 Roij 221.
[79]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235, codtel to NY, 1950 년 10 월 6 일 Stikker 171.
[80]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237, codtel to PEK, 1950 년 10 월 6 일 Stikker 44.
[81]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255, codtel to DH, 1950 년 10 월 9 일 Voogd 46.
[82]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284, codtel to DH, 1950 년 10 월 12 일 Voogd47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75, 인벤토리번호 2918, 자료번호 4293, codtel to DH,1950 년 10 월 13 일 Mouw 106.

“당신은 한반도 군사 정세가 최악인 상황에 지원하셨습니다. 당신은 공익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걸으실 듯 합니다. 현재는 군사 정세가 변하였으며 갈 필요가 있는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은 세계평화를 지키시고 법질서가 회복시키시기 위해 떠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훌륭한 행위를 하시고 한국을 또다시 번영하게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Stiphout, 2009: p.40)

네덜란드의 전투부대는 10 월 26 일에 출발했다.

IV.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정에 대한 재고찰

한국 전쟁에 관한 네덜란드 정책결정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정책이 무엇을 나타냈을까? 이 질문들을 답 하기 위해 2 장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3 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후에 이 분석을 국제질서에서 네덜란드 지위의 변환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상의 첫 질문을 보자면 에일란드스 (Elands, 2001: pp. 14-15)는 네덜란드의 한국 전쟁에 참전의 이율를 네 가지 제시했다. 즉, ㄱ) 네덜란드가 국제법질서의 전통적 지지자였다, ㄴ) 네덜란드가 경제적 재활과 안전 보증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했다, ㄷ) 네덜란드가 NATO 연합국들에게 연대감을 표현하고 싶었다, ㄹ) 네덜란드가 아시아 지역에 자신의 국익을 보존하고 싶었다. 한반도 파병에 관한 정치에 대한 3 장의 자세한 서술은 이 이유를 다양하게 강조했다. 이유를 각각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 낼 수 있다.

ㄱ) 국제법질서의 전통적 지지자인 네덜라드에 대하여:

한국 전쟁 전까지 네덜란드는 국제법질서 지지자인 긴 전통이 있었다. 이 전통은 18 세기쯤에 시작하였으며 이때 부터 발전했다. 이 점에서 헤이그가 20 세기 초기에 세계의 '법 수도'가 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연맹과 유엔 등의 다각적 국제기관이 세계질서에 등장하였을 때 네덜란드는 이러한 국제기관의지지자가 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네덜란드는 처음에 유엔이 강대국 권력 정치의 기관임으로서 유엔의 가치를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극 세계질서의 긴장을 풀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이 점은 스티커가 1950 년 3 월 13 일 각료회의에 중국 승인에 대한 주장에 확인된다. 그날에 스티커는 유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모든 국제 관계가 악화되며 유엔의 효율성이 방해된다고 주장했다.[83]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네덜란드가 국제법질서 지지자인 전통은 한국전쟁 참전의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네덜란드가 소규모로라도 유엔 군사적 개입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은 네덜란드가 유엔 회원으로써 국제법질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이 전투부대 파견을 요청하였을 때 네덜란드 정부의 반응은 훨씬 달랐다. 국내의 경제적, 군사적 어려움 때문이었지만 상징적 병력을 파병하는 것도 네덜란드 정부가 보기에 너무 복잡했다. 따라서 국제법질서를 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스팁하웃은 네덜란드가 유엔 개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권을 상실해서 유엔을 향하여 반감을 품었다고 하며 이 것을 설명한다 (Stiphout, 2009: pp. 21-22). 이 반감을 각료 회의록에 찾을 수 없어도 국회의사당에 한국전쟁이 논의되었을 때 네덜란드 국회의원이 몇명 이 원한을 표현했다.[84] 10 월 24 일에 드레이스가 한반도로 떠나는 병사에게 한 선언에도 네달란드가 국제법질서 지지자인 역할은 강조되었다.

---

[83]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2, 각료회의록 1950 년 3 월 13 일.
[84] http://www.statengeneraaldigitaal.nl, 국회의사록, June 30 1950.

ㄴ) 네덜란드가 유럽지역에 경제적 재활과 안전 보증을 위해 미국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여였을 때 네덜란드는 크게 미국에 의존했다. 2 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 되었음으로서 마셜플랜을 통아여 서유럽 경제적 재활하고 상호방위 원조계획을 통하여 안보 보증하면서 솔선을했다. 서유럽 안보는 대체로 소련 위협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네덜란드는 마셜 원조를 받고 있었고 NATO 를 설립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미국에 크게 의존했다.

전쟁 발발 후 첫 주에 네덜란드는 북한 침략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테스트케이스를 의하마는 것을 미국에게 지적한 것을 현저하다. 6 월 25 일에 스티커는 이 점을 채핀에게 지적했고, 6 월 25 일에 로이흘린은 이 점을 미국 국무부에게 알렸으며, 6 월 27 일에 번 발루섹은 한국전쟁을 테스트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정부에 의하면 한국 전쟁이 유엔 효율성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권위 (prestige)를 위한 테스트케이스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회담에 케난은 이 점을 확인했다. 케난은 한국전쟁이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충돌이지만 무엇보다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에게 유의미한 테스트였다고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것을 깨달았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드레이스는 미국이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단호한 반응이 없으면 다른 국가들도 공산주의 무력 공격 경우에 미국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에일란드스가

제시한 대로 이 테스트케이스는 미국을 향한 측면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테스트케이스였다. 8 월 7 일 각료회의에 반 마르스베인은 네더란드의 군사적 지원이 미국 여론을 향하여 유리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서유럽이 자유진영의 다른 국가를 지원하지 않으면 서유럽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국이 서유럽을 왜 지원해야 하냐고 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ㄷ) 네덜란드가 NATO 연합국들에게 연대감을 표현할 필요성:

NATO 내의 연대감을 지키는 이유는 3 장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전쟁에 관하여 네덜란드 정부 의사소통록에서 NATO 가 나타나지 않다. NATO 는 기관으로서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이 이상하지 않다. NATO 회원국가 들 무도 참전하지 않았던 것을 통하여 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월 3 일에 드레이스는 다른 국가들이 전투부대를 파견하기로 해서 네덜란드도 파견해야겠다고 하였는데 이 제안을 NATO 연대감의 필요성 보다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요인이 컸다. 8 월 3 일 각료 회의 전에 미국 외교관 두 분, 미국 상의원 한 명, 그리고 유명한 기자가 네덜란드 파병을 요청한 것과 미국 언론의 악평을 고려하자면 연대감을 지키는 이유는 미국 압력에 굴하는 것을 숨기는 수단이었다. 게다가 NATO 연대감을 지키는 이유와 미국 안전 보증이 필요한 이유의 차이는 명백하지 않고 일치한다.

ㄹ) 네덜란드가 아시아 지역에 자신의 국익의 보존에 대하여: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큰 국익이 있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주권이양으로 인해 영토와 인구 측면에 왕국의 어마어마한 일부를 잃었어도 1949 년 원탁회의에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소유와 인도네시아에서 상업적 권리의 보존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익을 어느정도 유지하게 되었다. 뉴기니 문제는 1950 년 초반에 동남아시아에서 논쟁점이 되었으며 논쟁이 한국전쟁 발발시 후에도 지속되었다. 네덜란드가 아시아 지역에 국익을 보존하는 다른 방식은 중화인민국의 승인이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큰 우려를 받았으며 한국전쟁의 발발이 이 우려를 증가시켰다 (Meijer, 1994: pp. 252-253).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향한 공산주의적 위협은 뉴기니를 향한 위협을 의했다.[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협을 방해하는 네덜란드의 방식은 회유정책이었다. 중국의 승인이 이 점을 증명한다. 때문에 네덜란드는 북한 침략에 대한 불균형적 반응이 동서문제가 초래한 긴장을 증가시키며 아시아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 국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Elands, 2001: p. 15) / Klep et. Al., 1999: pp. 31-32). 네덜란드가 우려하는 이 동서 긴장과 회유정책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믿음 때문에 네덜란드는 한반도 문제와 중국 문제를 연결시키는 미국의 정책을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했다.

중국에 대한 네덜란드 정책과 미국정책 간의 다른 시각은 한국

[85]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14621, Ambassadors Conference, 1950 년 8 월 16 일.

전쟁의 첫 주에 이미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7 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파견하는 미국의 결정을 분명히 반대했다. 이 시각은 7 월 3 일 각료 회의에 명백해졌다. 네덜란드 정부는 에베르트센이 대만 해협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었으면 에베르트센을 미국 지휘 하에 활동 할 수 없겠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승인과 중국의 소련과 북한과의 구별 때문에 대만 해협으로 파견을 확고히 반대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똑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는 자유세계가 중국을 중립적으로 접근하면 중국이 양극 국제 질서에 중립 국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북한과 중국을 향한 금수 조치는 네덜란드 회유정책과 미국 봉쇄정책 간의 다른 논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미국의 비판을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 네덜란드가 미국 비판에 상대적으로 쉽게 굴하는 사실은 이것을 잘 드러냈다. 아마도 네덜란드의 상업적 국익을 중국에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86] 미국의 요청을 반항하면서 따르는 것(follow under protest)은 대서양향 접근이 절대적이지 않았던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네덜란드는 외교정책의 독립을 어느정도 유지하도록 미국을 반대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네덜란드 외교정책과 미국외교정책 간의 가장 큰 논쟁점은 반드시 38 도선을 넘는가 하는 여부였다. 네덜란드는 전쟁 발발 직후에 38 도선을 건너가는 것에 대한 주장을 이미 표현하였는데, 충분히 크게 표현하지

[86]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2.05.02, 인벤토리번호 394, fiche 42, 각료회의록 1950 년 3 월 13 일.

않았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 38 도선을 건너갈 가능성이 네덜란드 비롯한 유엔 국가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었다. 미국은 7 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으로 중국 문제에 개입할 중국의 우려를 선동하였으며, 유엔군과 미국 극동군의 사령인 맥아더가 대만을 방문하였을 때 이 우려가 증가시켰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후에 미국이 38 도선을 건너가는 결정을 냈을 때 중국의 우려는 절정에 달했다. 미국 개입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증가한대로 한국 전쟁에 중국 개입에 대한 네덜란드의 우려가 증가했다. 중국 우려의 절정에 스티커는 데 보흐드 전보에 의해 영감을 받은 유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자 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유엔과 미국 대표단들의 아주 부정적 반응은 스티커의 결의안 초안의 소박성과 이상주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당시에 38 도선을 건너가는 것에 찬성하는 미국의 주장은 진실에 더 가까웠다.

결론적으로 에일란드스가 제시한 첫 요인은 에베르트센의 파견을 설명할 수 있다. 구축함을 파견할 결정은 아주 빨랐고 네덜란드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유엔을 지지할 의무를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전투부대를 파견할 결정은 더 주저했다. 때문에 네덜란드가 국제법질서 지지자인 사실은 전투부대의 파견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네덜란드가 보기에는 구축함 파견이 충분했다 (Klep et. al, 1999: p. 32). 게다가 성공적 인천상륙작전 후에 네덜란드가 네덜란드의 병력이 한반도에 아직 필요한지 확인한 것도 네덜란드의 주저를 드러난다. 에일란드스가 제시한 셋째 요인의

는거가 없기 때문에 전투부대 파견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 남아 있다. 첫째 요인은 네덜란드가 유럽 지역에 미국의 지원을 필요했다는 점이며, 둘 째 요인은 네덜란드가 아시아지역에서 네덜란드의 국익을 보존하고 싶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의 국익을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전투부대 파견에 대한 주저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요인은 네덜란드가 경제적 재활과 안보 보증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했다는 요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요인은 네덜란드 정부가 한반도로 파병할 결정을 대체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나온대로, 네덜란드는 미국잉 지원에 크게 의존하였으므로 미국의 네덜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각할 여유가 없었다. 미국이 유럽 지역에서는 네덜란드를 경제•군사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낮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네덜란드를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50 년 12 월에 뉴기니의 미래 상태에 대한 회담이 있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측면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의국익이 다시 중요한 쟁점이 된다. 1950 년 8 월 뉴기니 회담이 결론을 낸 대로뉴기니를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 지지가 네덜란드에게 필연적이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인도네시아 상실의 경험을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명백한 이유로 뉴기니 문제 해결에 미국은 네덜란드가 희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지자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뉴기니 문제 주요성이 감소된 동시에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뉴기니의 전략적인 가치가 증가했다.[87] 때문에 악화된 군사 정세가 초래한 미국의 압력에 굴하는 네덜란드의 파병할 결정은 네덜란드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꾸준히 받을 희망의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Klep et. al., 1999: pp. 32-34). 이 점에서 네덜란드 파병할 결정 직전에 미국 대사, 미국 상원 의원, 미국 외교관, 그리고 미국 기사가 네덜란드 고관을 방문한 것이 현저하다. 미국이 도입한 NATO 의무로 인해 네덜란드가 국방에 많이 투자해야 하였기 때문에 파병의 단점이 타당했다 (Brouwers and Megens, 1992). 또한 뉴기니에서 반란자와의 싸움도 상당한 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압력은 비용과 관리적 어려움 등 실용적 단점 보다 국제 정치적 장점을 네덜란드 정부에게 중요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과 과정으로 네덜란드의 파병할 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상 네덜란드 참전의 요인들을 보자면 네덜란드 중립주의적 아시아 정책과 네덜란드 대서양향 정책 간의 충돌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관하여 이 두 정책이 어떻게 공존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상 네덜란드 참전의 요인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를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정책이 어떻게 공존하였을까? 단순한 답변은 네덜란드가 미국 압력에 굴하였을 때까지 중립주의적 아시아 정책을 취했다는 답변이다. 스티커가 1949 년 7 월에 선언한 대로 "네덜란드가 NATO 와 동남아시아 중에 택해야 하면 동남아시아 국익이 더 중요했다."(Hellema, 2006: p. 158)그리고

[87]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관번호 2.05.117, 인벤토리번호 14621, Ambassadors Conference, 1950 년 8 월 16 일.

한반도로 전투부대를 파견할 결정 후 네덜란드는 한국전쟁에 관하여 대서양향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에 굴하는 것이 반드시 대서양향 접근을 취하였던 것을 의미하지 않다. 한편에, 네덜란드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대서양향 접근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자기 국방을 지키지 못 했고 경제를 스스로 재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상태에도 미국의 지원 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거의 보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합에 가입하는 계기가 많았다. 네덜란드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자신의 국방을 중립주의로 보존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드리게 되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문제에 유엔과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네덜란드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면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것은 현실주의적 대서양향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에, 새로운 보편적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는 2 차 세계대전 후의 양극 국제 질서에서 1920 년대와 비슷한 적극적 중립주의 정책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가 한국 전쟁에 유엔 하에 참전하였고 이러한 적극적 중립주의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큰 차이점은 유엔이 한반도 문제에 무력으로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향한 네덜란드의 정책은 원칙적으로 회유정책이었다. 네덜란드는 자유세계와 공산권 간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싶지 않아서 봉쇄정책 보다 회유정책을 선호했다. 때문에 82 번과 83 번 결의안이 소련을 생략한 것을 환영했다. 이 정책은 자유주의적 적극적 중립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전쟁에 관한 네덜란드 정책을 보자면 네덜란드의 대서향 접근은 현실쥐의적이고 정책의 구조(framework)이며, 네덜란드가 이 구조 안에 가능할 만큼 자유주의적 중립주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 차 세계대전 후의 현질주의가 지배하는 양극 국제 질서 때문에 네덜란드가 대서양향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엔이든 NATO 이든 자유세계 진영의 연합 안에서 가능할 만큼 독립적 정책을 취해 보았다.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청 다수를 준수하였어도 늘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표현했다. 네덜란드는 미국 정책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고 유엔이나 영국 등의 다른 국가를 통하여 미국에게 다른 접근으로 설득해 보았다 (De Moor, 1992: pp. 176-177).

중국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의 시각은 네덜란드가 미국에게 무조건적인 동맹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네덜란드는 미국에게 외교정치에 대한 네덜란드의 시각을 꾸준히 설득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네덜란드가 거의 항상 미국 요청에 굴하는 것이었다. 네덜란드는 북한과 중국을 향한 금수 조치를 세웠고, 전투부대를 파견하게 되었고, 38 도선을 건너가지 마라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미국이 강대국으로써 네덜란드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연합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 조직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을 상기하면 집단의 지도자가 규범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소약국들이 이 규범을 반항 없이 지키고, 중간 국가가 규범에 대해 조금 더 비판적인 행동을 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중간 국가처럼 행동을 했다. 왜 그랬을까? 네덜란드가 자신을 중간국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상실이 1 년도 안 되었고, 네덜란드가 자신을 100 년 넘게 국제법질서의 보호자로 인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유럽 나라였다. 하지만 미국과 아마 다른 나라에게는 네덜란드가 더 이상 중간 국가 아니었다. 네덜란드는 특히 군사적으로 20 세기에 도대체 중간 국가였을까? 아니었다고 하고 싶다. 네덜란드는 소극적 중립주의 정책의 전통 때문에 20 세기의 무력 정치의 진실과 접촉하지 않았다. 2 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 질서의 야망은 보편적이었어도 냉전은 이 시기를 무력 정치의 시기로 만들었다. 특히 한국 전쟁 같은 충돌에 소약국 이상주의가 표면 외에 자리가 없었다. 네덜란드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이 진실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지위가 예전과 상당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몇년 더 걸렸다.

V. 결론

본 연구는 네덜란드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요인과 2 차 세계대전 이전 외교정책의 중심이었던 중립주의 및 2 차 세계대전 이후 대서양향 외교정책이 한국 전쟁 발발 시에 어떻게 공전했는지 논의한다. 네덜란드의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한 기존연구는 한국에 파견된 병사들의 경험을 서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일란드스가 제시한 네덜란드의 한국전쟁 참전의 네 요인 중심으로 분석했다: ㄱ) 네덜란드가 국제법질서 전통적 지지자였던 요인, ㄴ) 네덜란드가 유럽 지역에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안보 보증이 필요했던 용인, ㄷ) 네덜란드가 다른 NATO 회원국가에게 연대감을 표현하고자 했던 요인, ㄹ) 네덜란드가 아시아 지역에 국익을 보존하려고 하였던 요인이 있었다. 위 요인의 타당성 및 한계점이 네덜란드 외교통상부의 1 차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에 대한 네덜란드의 의존성이 네덜란드의 한국전쟁 파병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악화된 군사 정세로 인하여 네덜란드에 구축함 파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렸고 이에 압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손익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냈다. 그 결과는 경제적 재활 미국의 지원과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보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미국 압력에 굴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였다. 이 측면에서 네덜란드가 뉴기니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는 네덜란드 정부 고려의 구체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네덜란드는

한반도에 파병할 결정으로 인해 공산권을 향한 회유정책을 포기하게 되었다.

대서양향 접근과 중립주의 접근이 당시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공존하는 것은 이 점과 큰 연관이 있다. 기존연구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간과했다. 네덜란드는 냉전 시작으로 현성된 양극 세계질서의 구조(framework) 내에 중립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려 했다. 국제법질서의 보호자로써 현실주의적 정치에 자유주의 접근을 순진하게 시행하고 싶었다.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였는데 대서양향 구조에서 정책을 취해야 했다. 위에서 설명한 국익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연루 (entrapment)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우려가 진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 외교정책과 미국 외교정책 간의 논쟁점은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냈다. 유엔군이 38 도선을 건너간 것은 대체로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엔군이 38 도선을 넘어 간 사실보다 다른 여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최후의 축진제였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냈다. 대만 해협으로 7 함대의 파견은 최근에 건국된 불안정한 국가의 생존을 도전하는 도발에 확고히 반응하는 중국에게도 큰 위협이었다. 중국 문제에 대해 급진 야망을 가진 맥아더는 유엔군과 미국 극동군의사령이 되어 중국의 우려를 심화시켰다.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없는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 7 함대가 대만 해협에 없었으며 북한 침략을 막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면 38 도선을 건너가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필자는 본 연구가 중국 개입에 대한 점을 드러낸 것처럼 무력 정치의 냉전시기에 소약국 정책에 대한 연구가 흥미로운 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제시로 본 연구를 끝내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 한국 전쟁 때 소약국 정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강대국의 참전에 집중하는 기존연구의 흥미로운 보탬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게 해 줄 수 있다.

VI. 참고문헌

1 차 자료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50. Volume VII, Korea (Washington 1976)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Netherlands National Archives), 외교통상부 기록관 (2.05.117 번) 인벤토리번호: 14621,14998, 15563, 22694, 22701, 26409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Netherlands National Archives), 주미네덜란드대사관 기록관 (2.05.75 번) 인벤토리번호: 2918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Netherlands National Archives), 전쟁부 기록관 (2.03.01 번) 인벤토리번호: 2358, 5179, 3406

네덜란드 국립 보존 기록관 (Netherlands National Archives), 각료 회의 기록관 (2.02.05.02 번) 인벤토리번호: 394

네덜란드 국회 회의록: www.statengeneraaldigitaal.nl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82 번 (1950 년 6 월 25 일) 및 83 번 (1950 년 6 월 27 일) 결의안

트루만 1950 년 6 월 27 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선언

2 차 자료

외국어 자료

Albinski, Henry S. 1961, 'Australia and the Dutch New Guinea Dispute,' *International Journal* Vol. 16 (4), pp. 358-382

Baehr P. 1978, 'The Foreign Policy of the Netherlands', in J.H. Leurdijk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Netherlands* (Alphen a/d/ Rijn), pp. 3-27

Baudet, H. & Fennema M. 1983, *Het Nederlandse Belang bij Indie*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국익』(Utrecht)

Boogman, J.C. 1978, 'The Netherlands in the European Scene, 1813-1913' in J.H. Leurdijk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Netherlands* (Alphen a/d/ Rijn), pp. 31-48

Brouwers J.W.L. & Megens C.M. 1992, 'Het Debat in de Ministerraad over de Nederlandse Bijdrage aan de NAVO, 1949-1951, 『NATO 에 네덜란드의 기여에 대한 각료 회의, 1949-1951』*Low Countries Historical Review,* Vol 107 (3), pp. 486-500

Daalder, H. 1978, 'The Netherlands and the World: 1940-1945' in J.H. Leurdijk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Netherlands* (Alphen a/d/ Rijn), pp. 49-88

De Moor, J.A. 1992, 'Aan de Amerikanen overgeleverd: Nederland, de Verenigde Staten en de Oorlog in Korea, 1950-1953', 『미국 지휘하에: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한국 전쟁, 1950-1953』 in J. Hoffenaar & G. Teitler, *De Koude Oorlog: Maatschappij en Krijgsmacht in de Jaren '50* (The Hague), pp. 162-181

Drakeley S. 2005, *The History of Indonesia*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Elands M. 2001, *Vechten, Verbeelden, Verwerken*, 『싸우기, 상상하기, 그리고 극복하기』(Amsterdam)

Galtung J. 1968, "Small Group Theory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Study in Isomorphism, in Morton A. Kaplan (ed.), *New Approaches to International Relations*, pp. 270-302

Gouda F. 1995, *Dutch Culture Overseas: Colonial Practice in the Netherland Indies, 1900-1942* (Amsterdam)

Gouda F. & Borcades Zaalberg T. 2002, *American Visions of the Netherlands East Indies/Indonesia: US Foreign Policy and Indonesian Nationalism, 1920-1949* (Amsterdam)

Halberstam D. 2009, *The Coldest Winter*, 『콜디스트 윈터』(파주)

Heldring J.L. 1978a, 'De Nederlandse Buitenlandse Politiek na 1945' 『1945 년 이후의 네덜란드 외교정치』 in E.H. van der Beugel (ed.), *Nederlands Buitenlandse Politiek; Heden en Verleden* (Baarn, 1978), pp. 29-45

--------- 1978b, 'Between Dreams and Reality' in J.H. Leurdijk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Netherlands* (Alphen a/d/ Rijn), pp. 307-322

--------- 1970, 'De Invloed van Openbare Mening op het Buitenlands Beleid',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 *Internationale Spectator* Vol. 24(1, pp. 24-34

Hellema D. 2006, *Buitenlandse Politiek van Nederland: De Nederlandse Rol in de Wereldpolitiek*, 『네덜란드의 외교정치: 세계정치에 네덜란드의 역할』(Utrecht)

--------- 1990, *1956: De Nederlandse Houding ten aanzien van de Hongaarse Revolutie en de Suezcrisis* (Amsterdam)

Van Hennik M. & Muys J.M. 1995, 'De Smalle Marges van het Buitenlands Beleid: Nederland en het Korea-Conflict, 1950-1954' 『외교정책 주변에서: 네덜란드와 한반도 문제, 1950-1954』 in Hellema D. e.a., *Jaarboek Buitenlandse Zaken 1994: Jaarboek voor de Geschiedenis van de Nederlandse Buitenlandse Politiek*, (The Hague)

J. Hoffenaar & G. Teitler 1992, *De Koude Oorlog: Maatschappij en Krijgsmacht in de Jaren '50* 『냉전: 1950 년대의 사회와 군대』 (The Hague)

Keohane R. 1969, “Liliputians’ Dilemmas: Small Stat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4 (2)

Keohane R. & Nye J. 1989,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NY)

Kester B. e.a. 2000, *Focus op Korea: De Rol van de Nederlandse Pers in de Beeldvorming over de Korea-Oorlog, 1950-1953,* 『한국에 포커스: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현성에 관한 네덜란드 언론의 역할』(The Hague)

Klep C. e.a. 1999, *Van Korea tot Kosovo: De Nederlandse Militaire Deelname aan Vredesoperaties sinds 1945,* 『한국에서 코서보까지: 1945 년 부터의 평화 유지 활동에 네덜란드의 참여』(The Hague)

Lijphart A. 1966, *The Trauma of Decolonization: The Dutch and West New Guinea* (London)

Meijer H. 1994, *Den Haag-Djakarta: De Nederlands-Indonesische betrekkingen 1950-1962* *『헤이그-자카르타: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 1950-1962』*(Utrecht)

Metzemaekers, L. 1951, ‘The Western New Guinea Problem,’ *Pacific Affairs* Vol. 24 (2), pp. 131-142

Peate, L. 2004, “The Van Heutzs create a tradition: the Dutch contingent in Korea” *Esprit de Corps* Vol. 11 (9), pp. 17-18

Ricklefs M.C. 1993,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tanford, Cali: Stanford University Press)

Russell, R.W. 1978, 'The Atlantic Alliance in Dutch Foreign Policy' in J.H. Leurdijk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Netherlands* (Alphen a/d/ Rijn), pp. 169-186

Schaafsma M.D. 1960, *Het Nederlands Detachement Verenigde Naties in Korea, 1950-1954* 『한국에서의 네덜란드의 유엔 파견단, 1950-1954』(The Hague)

Schaper, H.A. 1978, 'The Security Policy of the Netherlands, 1945-1948' in J.H. Leurdijk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Netherlands* (Alphen a/d/ Rijn), pp. 89-116

Scheffer P. 1988, *Een tevreden natie: Nederland en het wederkerend geloof in de Europese status quo*, 『만족한 나라:네덜란드와 유럽 현상에 대한 돌아온 믿음』 (Amsterdam)

Smit C. & Schot M. 1995, 'De Nederlandse Erkenning van de Volksrepubliek China, 1945-1950', 『네덜란드의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1945-1950』 in D. Hellema & T. Witte, *Onmachtig om te helpen: Nederlandse Reacties op de Socialistische Dreiging* (Amsterdam)

Snyder G.H. 1984,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4), pp. 461-495

Stiphout R. 2009, *Bloedigste Oorlog: Het Vergeten Bataljon Nederlandse Militairen in Korea*『가장 살벌한 전쟁: 한국의 잊혀진 네덜란드 대대』(Amsterdam)

Tarling N. 2000, '"Cold Storage": British Policy and the Beginnings of the Irian Barat/West New Guinea Dispute,' *The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Vol. 46 (2), pp. 175-193

Ten Velde A.R.J. 1983, *De Nederlandse Deelname aan de Korea Oorlog*, 『네덜란드의 한국전쟁에 참전』(Rijksuniversiteit)

Van Campen S.I.P. 1958, *The Quest for Security: Some Aspects of Netherlands Foreign Policy 1945-1950* (The Hague)

Vandenbosch A. 1976, 'Indonesia, the Netherlands and the New Guinea Issu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7 (1), pp. 102-118

Van Staden A. 1973, 'De Toenadering tot Oost-Europa in Nederlandse Ogen' 『네덜란드 시각에서 동유럽과의 회유』, *Internationale Spectator* Vol. 27, pp. 735-742

---------- 1978, 'The Role of the Netherlands in the Atlantic Alliance', in J.H. Leurdijk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Netherlands* (Alphen a/d/ Rijn), pp. 137-166

---------- 1989, 'The Changing Role of the Netherlands in the Atlantic Alliance', *West European Politics* Vol. 12, pp. 99-111

Vickers A. 2013,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orhoeven J.J.C. 1985, *Peace, Profits, and Principles: A Study of Dutch Foreign Policy* (Leiden)

한국어 자료

국가보훈저 2010, 『네덜란드군 6.25 전쟁 참전사』

VII. 부록

< 1.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6 월 29 일 공식적인 성명 >

STATEMENT OF THE NETHERLANDS GOVERNMENT ON KOREA.

The Netherlands Government have learned with concern of the breach of the peace which was committed some days ago in the form of an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by North-Korean troops.

They welcome the expedi~~ency~~tion shown by the Security Council in dealing with this matter and have noted with satisfaction th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f June 25th and June 27th.

The Government have decided to give execution to the resolution which the Security Council has directed to the United Nations inviting them to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of the forces of North Korea and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concerned.

In the interest of furthering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he Netherlands Government are considering the relinquishment of sea forces for participation in the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in the above-mentioned area.

The Government are at present in close consultation with Indonesia and the Benelux partners with regard to the situation and the measures required on the part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he Hague, June 29th, 1950.

83 (1950). Resolution of 27 June 1950

[S/1511]

The Security Council,

Hav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Having called for an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Having called upon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Having noted from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11]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ve neither ceased hostilities nor withdrawn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and that urgent military measures are require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Adopted at the 474th meeting by 7 votes to 1 (Yugoslavia).[12]

83 (1950). Résolution du 27 juin 1950

[S/1511]

Le Conseil de sécurité,

Ayant constaté que l'attaque dirigée contre la République de Corée par des forces armées venues de Corée du Nord constitue une rupture de la paix,

Ayant demandé la cessation immédiate des hostilités,

Ayant invité les autorités de la Corée du Nord à retirer immédiatement leurs forces armées sur le 38e parallèle,

Ayant constaté, d'après le rapport de la Commission des Nations Unies pour la Corée [11], que les autorités de la Corée du Nord n'ont ni suspendu les hostilités, ni retiré leurs forces armées sur le 38e parallèle, et qu'il faut prendre d'urgence des mesures militaires pour rétablir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Ayant pris acte de l'appel adressé aux Nations Unies par la République de Corée, qui demande que des mesures efficaces soient prises immédiatement pour garantir la paix et la sécurité,

Recommande aux Membres de l'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d'apporter à la République de Corée toute l'aide nécessaire pour repousser les assaillants et rétablir dans cette région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Adoptée à la 474e séance par 7 voix contre une (Yougoslavie) [12].

< 3. 트루먼의 6 월 27 일 성명 >

Korea 2443

IMMEDIATE RELEASE

JUNE 27, 1950

STATEMENT BY THE PRESIDENT

In Korea the Government forces, which were armed to prevent border raids and to preserve internal security, were attacked by invading forces from North Korea.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called upon the invading troops to cease hostilities and to withdraw to the 38th parallel. This they have not done, but on the contrary have pressed the attack. The Security Council called upon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In these circumstances I have ordered United States air and sea forces to give the Korean Government troops cover and support.

#1

The attack upon Korea makes it plain beyond all doubt that Communism has passed beyond the use of subversion to conquer independent nations and will now use armed invasion and war. It has defied the orders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ssued to preserv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se circumstances the occupation of Formosa by Communist forces would be a direct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Pacific area and to United States forces performing their lawful and necessary functions in that area.

Accordingly I have ordered the Seventh Fleet to prevent any attack on Formosa. As a corollary of this action I am calling upon the Chinese Government on Formosa to cease all air and sea operations against the mainland. The Seventh Fleet will see that this is done. The determination of the future status of Formosa must await the restoration of security in the Pacific, a peace settlement with Japan, or consideration by the United Nations.

#2

I have also directed that United States Forces in the Philippines be strengthened and that military assistance to the Philippine Government be accelerated.

#3

I have similarly directed acceleration in the furnishing of military assistance to the forces of France and the Associated States in Indo China and the dispatch of a military mission to provide close working relations with those forces.

#4

I know that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ill consider carefully the consequences of this latest aggression in Korea in defianc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return to the rule of force in international affairs would have far reaching effect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uphold the rule of law.

I have instructed Ambassador Austin,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Security Council, to report these steps to the Council.

- - - - - -

VIII. Abstract

A Research on the Involvement of the Netherlands in the Korean War

Nils Roald Meesterburrie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has answered the questions why the Netherlands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nd how the seemingly contradictory approach of colonial neutrality and the Atlantic approach coexisted in Dutch foreign policy at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Most available existing literature about the Dutch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gives a depiction of the experiences of the Dutch soldiers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checked the four reasons suggested by M. Elands: 1) The Netherlands was a traditional supporter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2) The Netherlands needed to secure the continuation of US economic support and the security guarantee in Europe, 3) The Netherlands felt the need to express solidarity

to the other NATO members, 4) The Netherlands wanted to secure its national interest in Asia. The validity of these reasons was checked by using mainly primary sources of the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is paper has indicated the validity and limits of Elands' four reasons and showed that dependence on America was the main reason for the Dutch government's decision to dispatch troops to Korea. American pressure after a worsened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made clear to the Dutch government that dispatching a destroyer wouldn't suffice. Accordingly, the Dutch government made a decision based on a cost-benefit analysis. The result was that the Netherlands had no choice but to give in to American pressure, because it needed American support for its economic recovery and European and Asian security. The desire to preserve Netherlands New Guinea as a part of the Dutch kingdom was a very specific motivation in this regard. With the decision to send troops to the Korean peninsula the Netherlands had to depart from its policy of engagement with the communist bloc in order to secure its remaining interests in Asia.

The coexistence of the Atlantic oriented approach and the old neutralist approach strongly relates to this point. This is a context that existing literature has thus far overlooked. The Netherlands still tried to maintain its tradition of neutralit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ipolar world order that had come into being with the start of the Cold War. It was critical towards US policy, but had to work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tlantic approach, because it needed American support to secure its interests mentioned above. In this sense the Dutch fear of entrapment became reality.

Moreover, the way the NL foreign policy clashed with the US foreign policy approach towards CH has brought to light an interesting point. The crossing of the 38th parallel is often regarded as the cause of Chinese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This paper has showed, however, that it can be argued that although it was the crossing of the 38th parallel that drove the CH to an intervention, it was more likely a last push after an accumulation of other threats. The dispatch of the 7th fleet to the TW strait was an equally big provocation towards the newly founded PRC that would react fiercely to any provocations, because such provocations were likely to challenge the chance of survival of the new and fragile state. The fact that MacArthur who had far going aspirations with regards to CH was the commander of both the UNC and US Far East Command made CH fears even more severe. A commander in chief of the UNC without a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and an absence of the 7th fleet in the TW strait might have made a well-thought out crossing of the 38th parallel specifically aimed at stopping NK aggression possible without giving the CH reason to intervene.

The author would like to finish with the suggestion that research of small power policy in the power politics era of the Cold War can bring to light interesting points, such as this paper has done with regards to the Chinese intervention. Research about small power politics during the Korean War specifically could be a great addition to the existing discourse on the Korean War that has mainly focu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big powers. It could help people remember the forgotten war.

Keywords: Korean War, Netherlands, Participation in War, Neutrality Policy, Atlantic Policy, Netherlands New Guinea, Cold War, Small Power

Student ID: 2013-24016